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88

07



잔잔한 물결처럼 번져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영향력

WAVE

THEME 1

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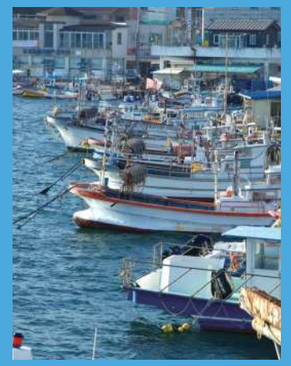
2025년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 가지 단어 속에 담긴 두 가지 해석에 집중합니다.
7월호의 키워드는 'Wave'입니다. 여러분은 'Wave'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첫 번째 테마는 쉼 없이 움직이는 '파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THEME 2

영 향 력

두 번째 테마는 '영향력'입니다.
'어떤 것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을 영향력이라고 하지요.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과의 동행을 통해 상생을 실천하고,
국민의 행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파도


6. 월간 수토픽
댐으로 이어지는
지역과의 동행, 함께 그리는 미래

10. Gallery
여러 모양의
파도를 바라보며

14. Theme Road
낯섦과 익숙함 속에 찾은
여행의 이유, 양양

20. Travel Guide
여름 파도를 기다린 이유!
서핑에 반할지도

22. Voice on Road
매일 파도를 보며 사는 남자
서퍼 권민호

26. The Kit
서핑
그래서 뭐부터 준비하죠?

28. Taste Note
거셀수록 좋은
파도의 맛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5년 7월 1일 | **통권** 688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영 향 력






30. Theme Prism
내 마음의 WAVE를 읽다

32. Opinion
K-영향력, 어디까지 퍼질 것인가

34. Talk with
희망을 퍼트리는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38. 수타벅스가 간다
우리 함께라서 더 '느낌 좋은'
안동권지사

42. Water & Tech
기후채찍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

46. On air
- 전사 재난대책 점검회의
- 베트남 사이공수도공사와 상수도사업 협력 확대

48. Newsroom

50. Water Lounge
물이 있어 더욱 찬란한 풍경
뮤지엄산

54. Monthly Issue
바다를 부탁해

56. Water Tales
푸른 바다의 정령
세이렌

58. Light on
영주댐 물결 따라 철길 따라
선비의 고장 영주로!

60. #알고리즘

K-water SNS에서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









댐으로 이어지는

지역과의 동행, 함께 그리는 미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을 중심으로 지역상생의 벨트를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선사하고 있다. 댐 주변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건 물론, 어르신, 학생까지 지역 문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노력을 살펴본다.



















지역 농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잇는 '이음 장날'

지난 6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다목적홀은 많은 직원으로 북적였다. 댐 주변 지역 농가 직거래 장터인 'K-water 이음장날' 행사가 열렸기 때문이다. 'K-water 이음장날'은 댐 주변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처음 시작되어 본사를 중심으로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4개 유역본부(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까지 행사 범위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앞서 1월 낙동강유역본부를 시작으로 한강유역본부, 금강유역본부에서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이번 행사까지 포함해 올해만 네 차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37개 댐 중 소양강, 대청댐 등 19개 댐 인근에 있는 강원 양구군, 충북 청주시 등 21개 지자체 소속 28개 농가가 참여했다. 약 90여 종의 다양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당일 임직원들의 개별 구매와는 별도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가당 100만 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구매해 전국 댐 주변 노인복지관 등에 기부하며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 영농시설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마을회관 등 생활기반 조성사업, 저소득층 의료비 등 주민생활 지원사업, 장학금 지급, 현장 체험학습 등 육영사업, 지역행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업도 새롭게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작년 5월 론칭한 'K-water 의료사랑방'이 그 예다. 보현산댐, 성덕댐, 군위댐 주변 영천, 청송, 군위 3개 시군 주민 대상의 버스 방문 의료서비스로, 혈액검사, 심장검사 등 검진과 함께 운동·생활 습관 상담, 복약 관리 등 기본 진료를 하고 세부 진료가 필요한 주민은 보건소나 전문병원으로 안내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산간지역 주민 등 작년 3개 지자체 약 6천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방울이 밥차'도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 중 하나다. 지역부녀회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주암댐 주변 지역의 홀몸 노인, 저소득 가정 등을 위한 무료급식 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한다.

댐을 품다, 지역에 가치를 더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수한 수변공간과 지역 고유의 문화를 결합하여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댐 로컬브랜딩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역관광 인프라 개선, 특화 마을 조성, 특산물 마켓 등 지자체가 지역주민, 민간기업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마스터 플래너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댐 주변 지역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여 매력있는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댐 로컬브랜딩사업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지난달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이달부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간다. 2027년부터는 단계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을 단순히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 댐 주변 지역의 가치를 함께 키우고,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과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우수 사례

소양강댐

방문 의료서비스 My Own Doctor

-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100명 이상) 대상 방문 진료 시행으로 질병 사전 예방

충주댐

장자늪 카누체험장

- 장자늪~목계솔밭캠핑장(3.3km) 카누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상레저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찾아가는 정리수납전문가

- 외곽지역 거주 독거노인 대상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 정리수납전문가 양성

보현산댐

영상 자서전 제작 사업

-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삶의 여정과 댐에 대한 추억을 기록한 '영상 자서전' 제작을 통해 세대 간 및 지역 유대감 강화

주암댐

방울이 빨래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세탁물 수거-수선-세탁-건조-포장-배달까지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사랑愛 한끼 밥묵차

- 노년기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단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촌 지역 독거노인 삶의 질 개선

대곡댐

방울이합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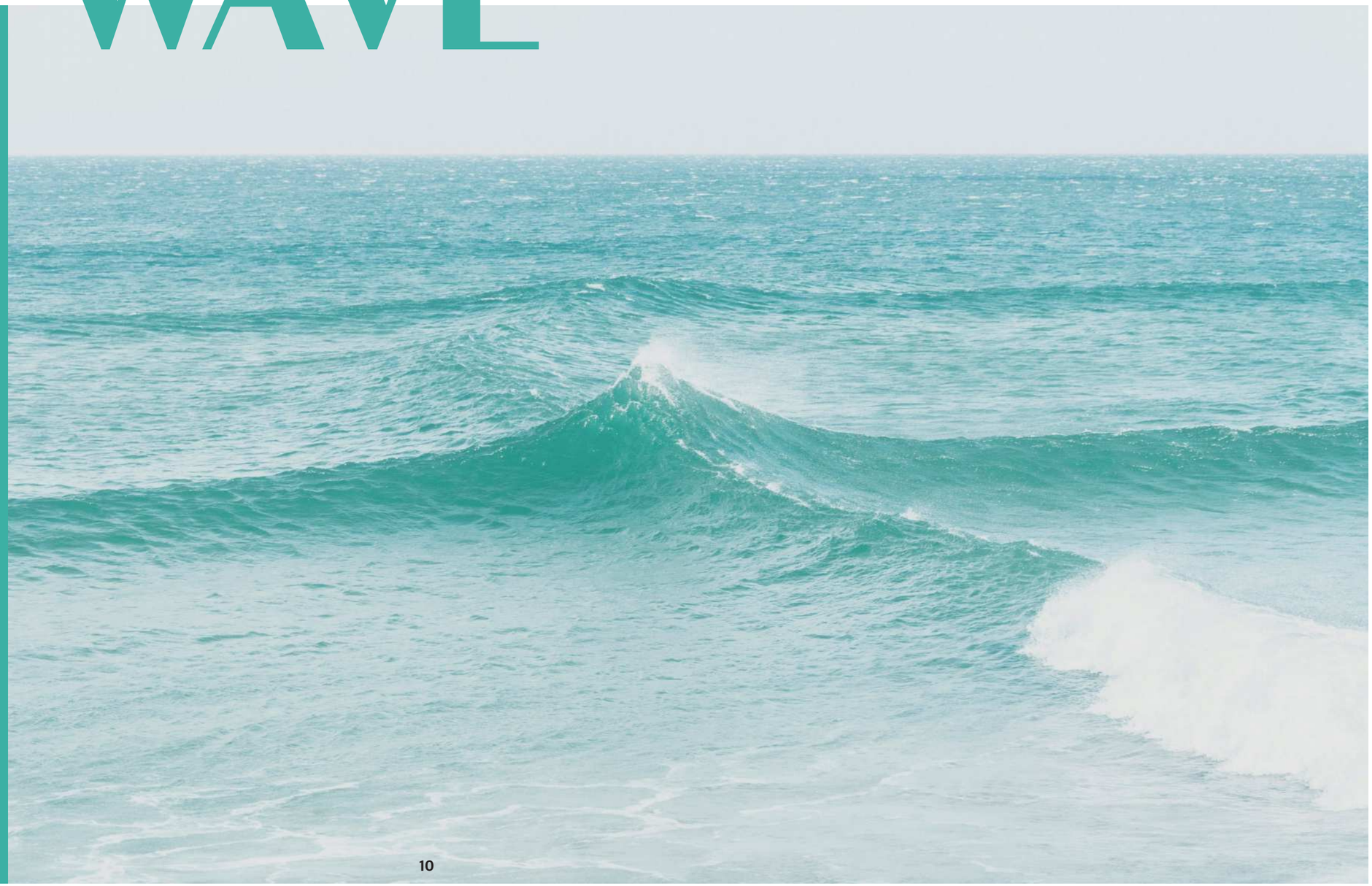
- 낙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상 방과 후 학습(음악 프로그램) 운영 및 악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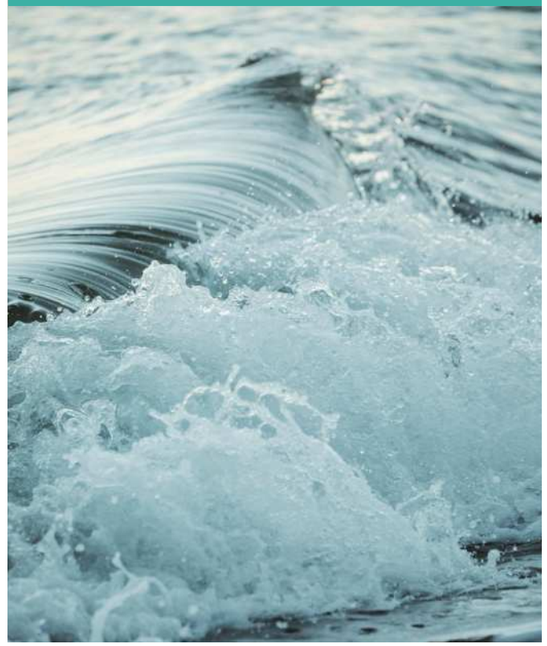
용담댐

탄소제로형 생태마을 조성

- 마을 단위 저탄소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친환경농법 보급
- 지역 생태탐방로 등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계인구 확보

W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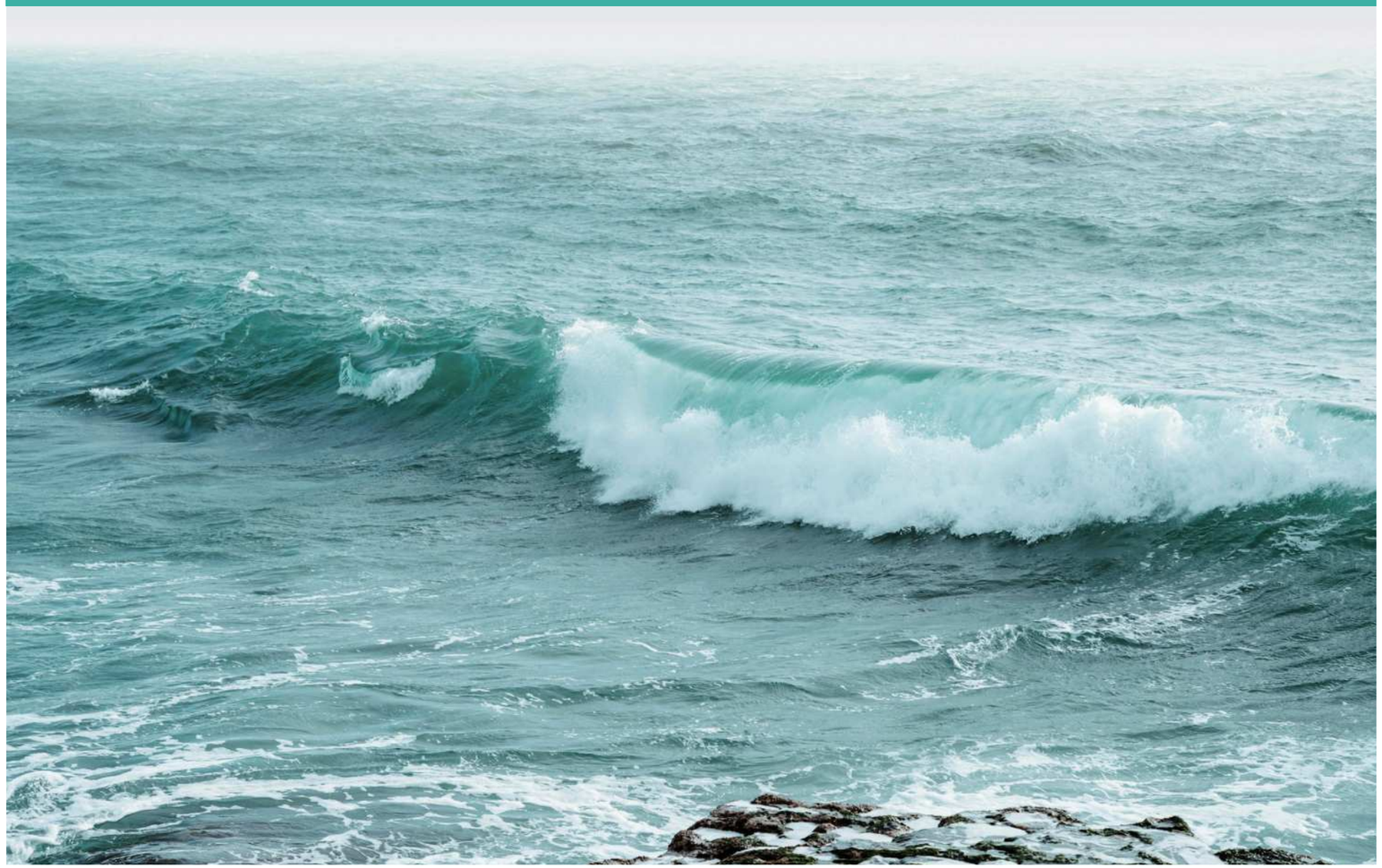
여러 모양의 파도를 바라보며

어떤 파도는 뙤약볕 아래 찬란히 반짝이고,
어떤 파도는 암초에 몸을 부딪치며 하얗게 부서집니다.
또 어떤 파도는 잔잔히 스치는 바닷바람의 붓끝에서
일렁일렁 주름살을 그려내기도 하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내고,
또 막다른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파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떠올려 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 파도처럼 살고 싶어.'



A wavering moment





파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흘러가.
너도 그 흐름 속에서 너만의 길을 찾아.”
파도의 리듬에 맞춰 조금씩 발걸음을 떼어 봅니다.
바다를 누비는 파도의 여정을 따라 한 걸음.
우리는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파도는 무엇인가요?

글. 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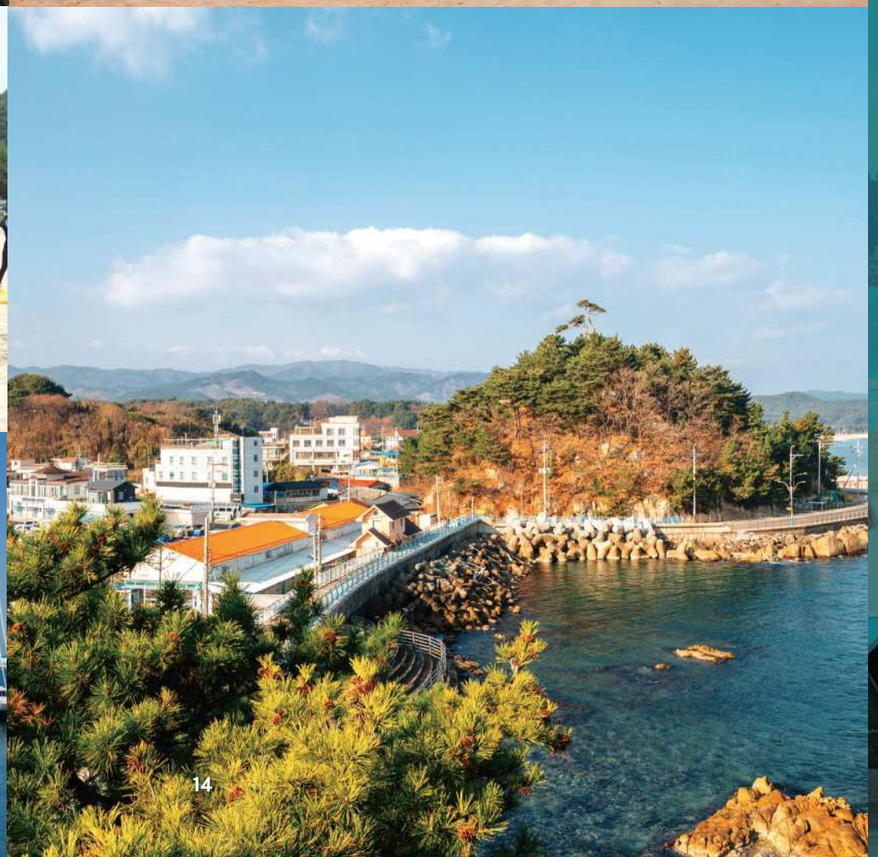


















낯섦과 익숙함 속에 찾은 여행의 이유

여행 때마다 질문한다.
이번 여행의 이유는 뭘까….
사람마다 제각각일 테지만,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물론 언제 누구와 여행하느냐도 좋은
물음일 테다. 꼬깃꼬깃 질문을 머릿속에
접어 넣은 채 양양에 도착했다.
태양이 작열했고 그 아래 젊은 열기는
그보다 더 뜨거웠다.

양양

낯섦, 서퍼들의 천국 양양

한때 나의 여름휴가 장소는 언제나 강원도 바다였다. 그중에서도 양양을 즐겨 찾았다. 모르긴 해도 고속도로 요금소 문지방이 닳고 닳았을 거다. 많은 직장인이 그렇듯 당시 내 휴가는 길지 않았다. 기껏해야 4박 5일 수준이었다. 그러니 해외로 눈을 돌리기엔 언감생심이었다.

돌이켜 보면 내 여행은 오로지 일상 탈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휴가 때마다 주야장천 양양을 찾았던 이유가 있다. 그건 바다였다. 양양의 에메랄드빛 바다는 일상탈출을 꿈꾸던 나에게 비상구나 다름없었다. 그 문을 통해 나는 즐거움과 해방감과 위로를 마주했다.

2015년 국내 최초 서핑 전용 해변으로 문을 연 하조대 서피비치는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 작은 해방구다. 서피비치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경험'이 시작된다. 파란 하늘과 바다를 배경 삼아 세워놓은 노란색 'SURFYY BEACH' 글씨가 설레게 만든다. 시선을 좌우로 돌리면 1km 구간에 걸쳐 서핑 전용 해변이 펼쳐지고, 펄럭이는 그늘막 아래에 빈백존, 힐링존이 바다를 향해 자리한다. 서퍼를 위한 휴식 공간인 칠링존과 선셋바, 야자수 등 다양한 포토존 덕분에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신나는 음악까지 한 스푼 그득하게 올려주니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제 서핑을 즐겨보자. 이곳 해변은 넓은 직선형으로 수심이 얕고 파도가 일정한 높이로 일어 서핑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물론 영화 속 집채만 한 파도는 아니지만, 초급자와 중급자가 파도를 즐기기엔 충분하다. 전문 강사진과 서핑 장비도 완벽하다. 요가 프로그램도 있다. 한바탕 파도를 즐겼다면 선셋바에서 시원한 맥주 한잔을 즐기자. 알싸하고 깔끔한 맥주 한 모금에 파도와 씨름했던 피곤이 썰물처럼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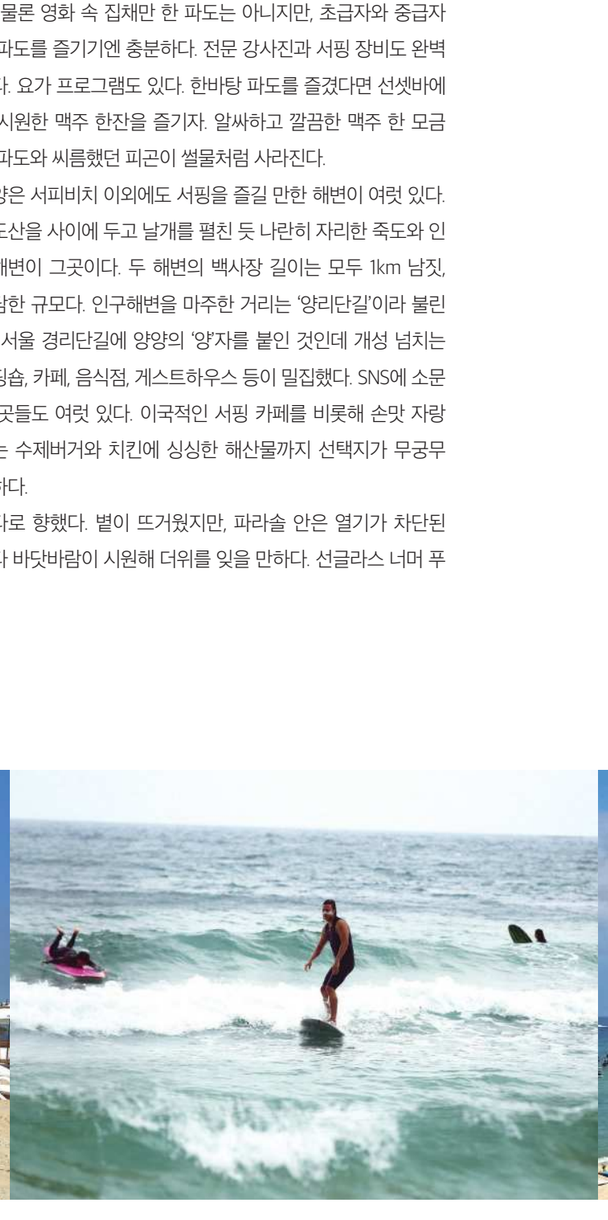
양양은 서피비치 이외에도 서핑을 즐길 만한 해변이 여럿 있다. 죽도산을 사이에 두고 날개를 펼친 듯 나란히 자리한 죽도와 인구해변이 그곳이다. 두 해변의 백사장 길이는 모두 1km 남짓, 아담한 규모다. 인구해변을 마주한 거리는 '양리단길'이라 불린다. 서울 경리단길에 양양의 '양'자를 붙인 것인데 개성 넘치는 서핑숍, 카페,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등이 밀집했다. SNS에 소문난 곳들도 여럿 있다. 이국적인 서핑 카페를 비롯해 손맛 자랑하는 수제버거와 치킨에 싱싱한 해산물까지 선택지가 무궁무진하다.

바다로 향했다. 볕이 뜨거웠지만, 파라솔 안은 열기가 차단된 데다 바닷바람이 시원해 더위를 잊을 만하다. 선글라스 너머 푸른 바다가 왈칵 밀려온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곧추선 파도가 하얀 거품과 함께 사라진다. 바다는 쉼 없이 파도를 반복하며 이어간다. 그러는 사이 머릿속 상념들도 파도에 휩쓸려 간다. 생각의 끈이 풀리자 긴장했던 어깨가 유연해지고, 머리도 맑아진다. 바다 멍의 효험일까?

양리단길은 낮보다 밤이 매력적이다. 클럽을 찾은 청춘들은 화려한 조명과 강렬한 비트에 몸을 맡긴 채 떼창과 군무로 반응한다. 음악에 들썩이고, 열기에 뜨겁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운영하는 풀파티도 인기다.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다가 디제이의 현란한 음악에 홀린 듯 몸을 맡긴다. 양리단길의 밤은 한시도 쉬지 않고 새벽까지 쿵짝인다. 한마디로 신세계다.

서피비치에서는 매일 밤 애프터파티가 열린다. 양리단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변화무쌍한 팔색조 하늘이 아닐까. 노란색으로 시작해 붉게, 푸르게 그리고 검게 변하는 하늘은 잊지 못할 순간으로 가슴에 남을 것이다. 스페인에 이비자의 밤이 있다면 양양에는 양리단길과 서피비치의 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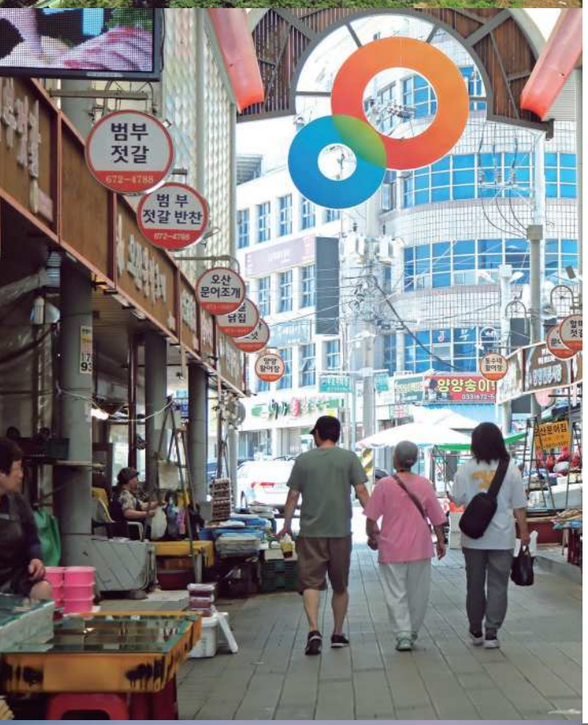




Travel TIP

양리단길에는 게스트하우스, 서핑숍, 술집, 클럽이 모두 모여 있다. 낮엔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거나 서핑을 강습받고, 저녁엔 게스트하우스의 흥겨운 파티에 참석하면 된다. 양리단길 예약 전용 사이트(www.yyroad.co.kr)에서 숙박+서핑+파티를 결합한 게스트하우스 패키지와 호텔 패키지, 파티 패키지를 비롯해 서울~양양 서핑버스 상품도 판매한다. 양리단길에서 택시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중심가를 벗어나서 이용하자. 주차된 차들과 인파로 매우 혼잡해 택시 진입이 어렵다.





익숙함, 양양의 일상을 엿보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도 여행의 이유 중 하나일 테다. 이제 익숙한 양양의 일상 속으로 떠나볼 차례다. 양양전통시장을 먼저 찾았다. 상설시장이지만, 여전히 4일과 9일에 오일장이 열린다. 시장 사람들의 투박한 일상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시장통을 자박자박 걸었다.

여행을 목적으로 시장을 찾았다면 십중팔구는 먹거리 때문. 시장에서 맛볼 만한 음식으로 감자옹심이와 장칼국수, 메밀전병 등을 꼽는다. 그중 감자옹심이는 간 감자와 녹말을 반죽해 끓여낸다. 가게에 따라 칼국수 사리를 조금 넣기도 한다. 생김새는 매우 투박하다. 걸쭉한 국물에 감자옹심이를 수제비처럼 얇고 크게 떼어 넣은 꼴이 얼핏 감자수제비라 불러도 괜찮겠다. 녹말이 들어간 탓에 국물이 걸쭉하고 온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해서 멋모르고 급하게 먹었다간 입천장이 홀러덩 벗겨질 수 있으니 후후 불어가며 천천히 먹어야 한다. 사각거리는 감자의 식감이 재밌고 속을 데워주는 깊고 따뜻한 국물 덕분에 이열치열을 제대로 경험한다. 이외에도 장이 서는 날에는 바삭한 치킨과 쫀득한 도넛, 속이 꽉 찬 붕어빵 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요깃거리가 많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남애항으로 향했다. 방파제가 포근하게 감싸 안은 작은 어항이다. 삼척 초곡항, 강릉 심곡항과 더불어 동해안 3대 미항으로 꼽힐 만큼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곳이다. 영화 <고래사냥>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한 것을 기념해 세운 표지석이 있고, 그 뒤로 바닥이 투명 유리로 제작된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있다.

남애항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다. 항구의 소소한 일상을 지켜보며 망중한을 즐기거나, 태양을 낚으려는 듯 낚싯대를 드리운 강태공의 여유로운 모습을 지켜보는 것처럼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모처럼 기회가 닿아 남애항에서 일출을 챙겨봤다. 어둠을 깨우는 어민들의 모습과 붉게 물든 바다를 향해 뱃고동을 울리는 어선과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빨간 등대를 묵도했다. 그 풍경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다만, 삶의 현장이 다를 뿐.

양양 여행의 궁극적인 이유는 낯섦을 통해 즐거움과 낭만을, 익숙함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조용히 지켜보는 게 아닐까. 어느덧 나는 매일 출근하지 않는 전업 여행작가로 살고 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에게 여행은 변함이 없다. 여행은 세상을 마주하는 또 다른 문이다.













양양전통시장 디저트 맛집

양양샌드

양양전통시장 상가 2층에 양양여성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문화카페 양양샌드가 있다. 인기 메뉴인 샌드위치와 샐러드는 사실 재료의 신선함이 중요한데 여긴 밭에서 금방 뜯어온 듯 푸릇푸릇 생기 넘친다. 양양을 추억하고 싶다면 선물용으로 딱 좋은 송이샌드와 연어샌드 그리고 귀여운 굿즈를 추천한다.

A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5길 9, 2층
T 0507-1406-0585



남애항 속풀이 맛집

남애항 해녀횟집

과음으로 인해 뒤틀린 속을 풀기 좋은 맛집이다. 40년 모범업소를 자랑하는 만큼 청결하고 잘 정돈된 식당 분위기에 마음이 놓인다. 대표 속풀이 메뉴는 섭국이다. 소뼈와 닭을 넣고 끓여낸 진한 육수에 섭과 전복, 콩나물 등을 넣어 개운, 얼큰,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싱싱한 회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A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매바위길 163
T 0507-1389-7475

글. 편집실 **사진.**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콘텐츠랩, 포항시, 고흥군, 고성군

여름 파도를 기다린 이유! 서핑에 반할지도

서핑의 성지가 '양양'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만큼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이국적인 풍경, 쏟아지는 노을빛, 정열적인 에너지 등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전국의 서핑 명소들을 소개한다.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

제주에서 가장 먼저 서핑 클럽이 생겨난 중문색달해수욕장은 서퍼들에게 천국 같은 장소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파도 상태가 특히 좋아 서핑에 최적의 시기이며, 건조에서 만조로 넘어가는 물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서핑 구역이 300~400m로 넓어 여유롭게 파도를 즐길 수 있고, 얕은 파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비치 브레이크(Beach Break)'와 큰 파도에 도전할 수 있는 '리프 브레이크(Reef Break)' 등 다양한 서핑 포인트가 있어 난이도별로 즐기기에 좋다.

L 난이도 ★☆☆☆☆

A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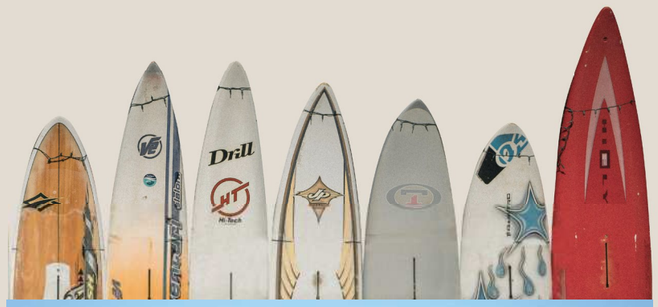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푸른 바다와 드라마틱한 파도를 간직한 만리포해수욕장은 '만리포니아'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랑한다. 수도권에서 2~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만큼 접근성이 좋은 이곳은 해변 경사가 완만해 서핑 초보자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다. 특히 석양이 물드는 오후 시간대엔 붉은 노을과 함께 파도를 타는 장면이 장관을 이루며, 감성적인 라이딩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낭만과 스릴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많은 서퍼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다.

L 난이도 ★★☆☆☆

A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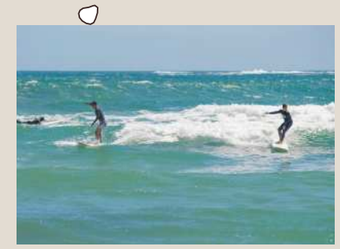
포항 신항만 방파제

경북 최고의 서핑 스폿으로 유명한 신항만. 방파제 근처에서 가파른 경사로 브레이크가 시작되며, 파도가 좋은 날은 긴 라이딩도 가능해 서핑의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구간은 파도가 완만하게 일어 롱보드에 적합하며, 자연스럽게 숏보드와 롱보드 포인트가 구분되어 있어 서퍼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 서핑을 즐기기에 좋다. 단, 파도가 큰 날에는 조류가 강하게 형성되어 방파제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자.

L 난이도 ★★★☆☆

A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고성 봉수대해수욕장

봉수대해수욕장은 바닷물이 맑기로 유명하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강한 편이라 중급 이상의 서퍼들에게 적합하며, 파도의 질도 우수해 도전정신을 자극한다. 북쪽에서 파도가 들어오는 날에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물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시기와 상관없이 서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방파제 주변은 조류가 강하고 선박이 드나들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L 난이도 ★★★☆☆

A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부산 송정해수욕장

'서핑 좀 탄다' 하는 이들이 모이는 서핑 성지, 송정해수욕장.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봄과 여름에는 남서풍이, 가을과 겨울에는 북동풍이 불어 사계절 내내 다른 방향의 바람을 타고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오후 시간대에는 넓고 강한 파도가 만들어져 박진감 넘치는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얕은 수심과 따뜻한 수온 덕분에 입문자에게도 안성맞춤이며, 해 질 무렵 바다 위에서 즐기는 서핑은 그야말로 황홀한 경험을 선사한다.

L 난이도 ★★★☆☆

A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고흥 남열 해돋이해수욕장

남열 해돋이해수욕장은 이름 그대로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돋이 풍경이 인상적인 장소로, 서핑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따뜻한 남쪽에 위치해 한겨울에도 서핑이 가능하며,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는 남동풍이 불어와 적당한 크기의 파도를 만들어 낸다. 해변을 가로막는 섬이 없어 남태평양에서 오는 최상의 파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롭게 서핑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명소다.

L 난이도 ★☆☆☆☆

A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권민호

매일 파도를 보며 사는 남자

파도 위에 올라보기 전까지는 몰랐다. 짠 내 나던 바닷바람이 반가운 친구처럼 느껴지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나를 향한 응원 소리처럼 들릴 줄은. 드넓은 바다 위에 우뚝 선 순간 자신의 운명은 서퍼였음을 알게 됐다는 권민호 씨를 만났다.

서퍼 권 민 호



나를 미치게 하는 서핑

'올여름 휴가 어디로 가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바다다. 여름의 물놀이만큼 더위를 씻기 좋은 게 없기 때문. 그런 의미에서 권민호 씨는 강릉 주문진에서 나고 자란 '바다'수저다.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게 푸른 물결이었고, 귀 기울이면 들리는 게 시원한 파도 소리였지만, 그에게 바다는 짠내 나는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단다.

그러다 바다의 매력을 알게 된 건 어느 겨울, 양양에서 본 낯선 광경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보드 같은 걸 들고 바다로 뛰어들더라고요. 까만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얼핏 해녀 같기도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희한했죠." 그가 본 것은 서퍼들이었다. 당시만 해도 서핑은 대중에게 익숙한 스포츠가 아니었기에 그 광경이 신기하게만 보였다. 동시에 궁금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길래 이 추운 날씨에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단순한 호기심에서 올라탄 보드 위에서 민호 씨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났다. 보드에 올라타 느낀 황홀함은 그를 단박에 서핑의 매력에 빠지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실 저는 운동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어요. 쉬는 날이면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스스로 느긋함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파도를 미끄러지는 짜릿한 순간이 저를 미치게 하더라고요. 흘러가던 대로 인생을 살던 저에게 처음으로 잘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그게 서핑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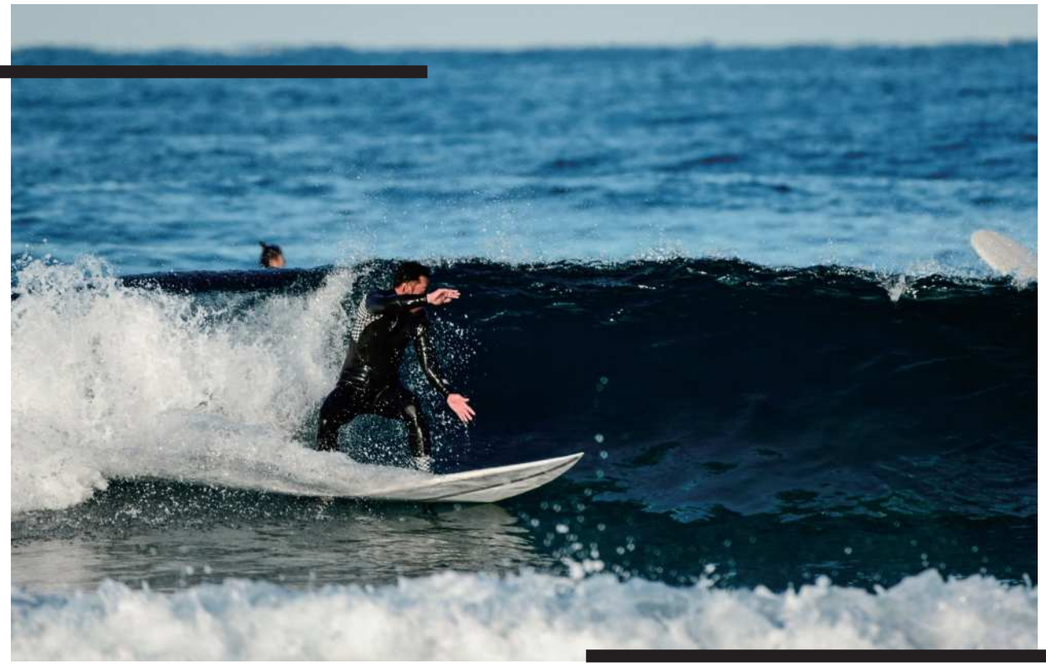


'바다'라는 낙원에 사는 일

서핑에서 가장 기본인 '테이크 오프(Take-off)'란 보드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말한다. 기본이지만 초보자에게는 호락호락한 동작이 아니다. 짧은 순간 몸을 일으켰다고 해도 금세 바다에 빠지기 일쑤. 민호 씨는 이 찰나의 성공이 주는 짜릿함이 서핑을 놓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어려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수십 개의 파도를 타야 해요. 아주 오랜 인내의 시간이죠. 그러다 아주 잠깐이지만 '됐다!'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순간의 도파민이 어마어마해요. 한번 성공하면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난다니까요.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파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서핑이 민호 씨를 애타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자연이 허락해 주어야만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서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날은 일 년에 100일이 채 안 된단다. 주로 가을과 겨울에 파도가 좋은 반면 여름에는 파도를 잡기가 힘들다. 민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날 또한 바다는 고요했다. 파도 소리마저 숨죽인 바다를 보던 그가 요즘 서핑을 못해 아주 힘들다며 우스갯소리를 더했다. 이제는 겨울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들던 서퍼들의 마음을 백번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얼마 전에는 서퍼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났다. "일본 서퍼 중 이노우에 타키를 좋아해요. 전 세계 서핑 리그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세계적인 선수인데 좋은 기회로 타키를 양양에 초대하게 된 거예요. 함께 파도를 타고, 그의 기술을 배워보기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죠. 하나에 진심으로 꽂히면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었어요. 아마 서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진심이지 못했을 거예요."라며 성덕이 되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평생 바다 위에서 살기로 했다

보드 위에 올라서는 건 '서퍼'의 몫이다. 그렇기에 서핑은 혼자 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민호 씨의 말에 따르면 서핑은 '같이' 하는 스포츠란다. 우선 자연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 바다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중 내가 탈 수 있는 파도는 정해져 있다. 날씨, 파도의 크기와 질, 내가 선택한 파도까지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제대로 된 서핑을 즐길 수 있단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호흡이다. "서핑은 거울을 보며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버디(함께 서핑을 하는 동료)들이 정말 중요해요. 서로 환호하며 에너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제가 멋진 기술을 해냈을 때 증인이 되어주기도 하죠. 그 맛에 더 힘이 나고요. 혼자 하면 훈련이지만, 같이하면 즐거운 놀이랍니다."

서퍼로 산 지도 벌써 10년. 그 사이에 '서핑'에 대한 마음도 조금 바뀌었다. 예전에는 그저 즐기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서핑씬이 넓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단다. 일종의 책임감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강습의 스타일도 바꾸었다. "예전에는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어떻게든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엄하게만 하니 '서핑은 힘들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뭐든 많은 사람이 함께 즐겨야 문화가 발전하는 건데, 그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죠." 그러나 실력 향상이 필요한 숙련자들에게는 여전히 엄한 강사라며 웃었다.

마지막으로 민호 씨의 꿈은 '서핑하는 멋쟁이 할아버지'로 나이 드는 것이다. "'아직도 그렇게 서핑이 좋아?'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여전히 재미있어요. 앞으로도 평생 서퍼로 살고 싶어요. 시간이 오래 흘러 루키들이 저를 보며 '저 할아버지는 한평생 서핑을 하며 살았대. 그런데 아직도 서핑을 즐기신대!'라고 말해준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의 표정은 이미 낙원 속에 사는 사람을 닮아있었다. 이미 '바다'라는 자신만의 낙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리라.

글. 편집실 그림. Rosy



서핑할 땐 멋보다 안전
슈트

보드 위에선 한 줌의 그늘도 없는 망망대해에 쏟아지는 뜨거운 뙤약볕을 그대로 맞고 서 있어야 한다. 그러다 자칫 중심을 잃으면 한순간 차가운 물속으로 첨벙 빠져든다. 그렇기에 체온 저하나 화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슈트 착용이 필수다. 3~5mm 두께로 손목부터 발목까지 덮고 있는 '풀슈트'가 가장 일반적인데, 더운 여름철에는 반소매, 반바지 형태의 슈트를 입기도 한다.

※ 슈트 관리 팁 : 서핑이 끝난 뒤에는 곧장 흐르는 물로 슈트에 묻은 모래와 소금기, 오염물질 등을 씻어내야 한다. 이후 미지근한 물에 하루 정도 담가두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 섬유유연제를 이용해 헹궈주면 좋다. 건조는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해야 한다.



내 발은 소중하니까
아쿠아슈즈

단순히 '물놀이'라는 생각에 맨발이나 슬리퍼를 신고 서핑을 하면 안 된다. 특히 모래사장이나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는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발을 보호해줄 아쿠아슈즈를 신는 것이 좋다.

SURF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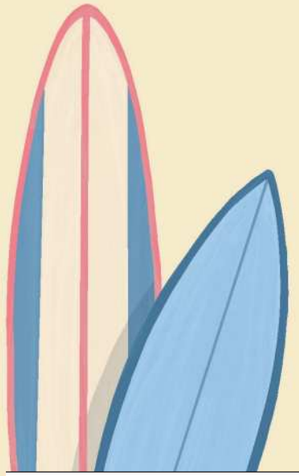


보드야 멀어지지 마
리쉬코드

아무리 서핑을 잘 하는 사람일지라도 파도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 보드에서 떨어지기 일쑤다. 그렇기에 '리쉬코드'로 보드와 발목을 연결해 두면 보드가 파도에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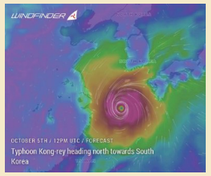
서핑 그래서 뭐부터 준비하죠?

파도 위에 올라타 멋있게 미끄러지는 내 모습을 상상하다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당장 서핑에 도전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려는데, 잠깐. 보드만 있으면 서핑을 할 수 있을까? 준비물부터 에티켓까지 서핑 입문자를 위한 몇 가지 서핑 지식을 전한다.



서퍼라면 필수앱, 해로드 & windfinder

해양레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인 앱을 소개한다. 먼저 '해로드'는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한 해양안전 모바일 앱이다.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전자해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위급 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에 자신의 위치 정보 등을 알릴 수 있어 안전한 서핑을 즐기는 데 필수다. 어느 정도 서핑을 즐길 줄 아는 단계가 되었다면 'windfinder'를 통해 바다 차트를 읽어보자. 시간대별 파도의 높이와 방향, 바람의 세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해외의 파도 정보도 알 수 있어 해외 원정 서핑에도 유용하다.





롱보드냐, 숏보드냐
그것이 문제로다

'롱보드'는 말 그대로 9피트 이상으로 길이가 긴 보드를 말한다. 보드 면적이 넓은 만큼 부력이 좋아 균형을 쉽게 잡을 수 있고, 작은 파도에서도 힘을 쉽게 받아 파도를 타기에 용이하다. 한마디로 입문용 보드로 좋다. 7피드 이하의 보드를 '숏보드'라 하며 날카로운 턴, 급격한 방향 전환 등 민첩하고 빠른 동작을 구현하기에 수월하다. 서핑 영상 속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는 서퍼들은 대체로 숏보드를 타고 있다.

서핑에도 **에티켓**이 있다

원 웨이브 원 맨(One Wave One Man)

서핑은 맨몸으로 하는 스포츠다 보니 서로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한 파도에는 한 서퍼만 탈 수 있다'라는 무언의 규칙이 존재한다. 다른 서퍼가 파도를 타고 있을 때는 그들의 경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파도 우선권 존중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파도의 피크에서 가장 가까운 서퍼가 파도의 주인이 된다. 피크의 위치가 수시로 바뀌는 바다의 경우 피크 선점을 위해 파도를 선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디서든 보드를 놓지 않기

서핑 중 보드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중심을 잃어 넘어졌을 때에도 보드가 파도에 떠내려가며 다른 서퍼들을 위협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보드를 정리해 품에 안는 것이 좋다.

Taste Note

글. 조수빈

거셀수록 좋은 파도의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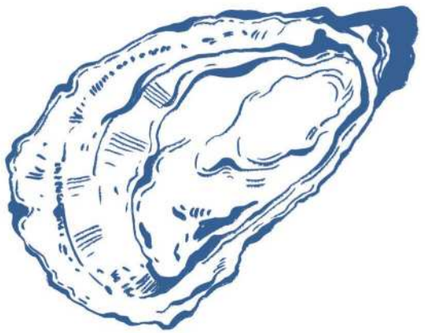
파도가 거센 바다에서 자란 식재료가 유독 깊고 진한 맛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어떤 식재료에게 파도는 고난이 아니라 선물이다. 빠른 해류 속에서 자랄수록 식감과 풍미가 더욱 좋아지는 식재료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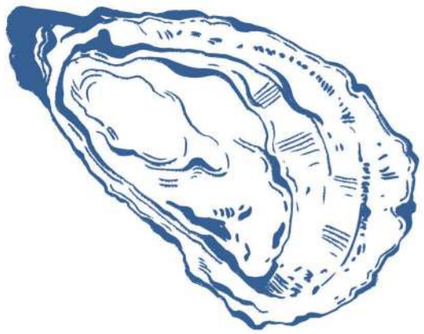
건강한 맛을 만드는 비결

굴

조류가 세면 굴의 품질이 좋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우선 양식과 자연산을 구분해야 한다. 양식의 경우 조류가 세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굴이 고정되지 못하는 데다, 먹이인 플랑크톤 또한 빠르게 흘러가 버려 굴이 충분히 먹이를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산의 경우 적당한 조류와 파도는 굴의 품질을 높이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한다. 굴은 바닷속의 바위나 배의 로프에 붙어 플랑크톤과 유기물 등을 먹고 자란다. 파도의 흐름에 따라 산소와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니 굴은 신선한 먹이를 섭취하며 살이 통통하게 오르게 된다. 또한 거센 물살을 이겨내기 위해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 유속이 빠른 지역에서 자란 굴은 흐물거리지 않고 탱글하다. 마지막으로 바닷물의 자정 작용이 활발해 노폐물이나 균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다. 자연산 굴이 비린 맛이 적고 짭조름한 풍미가 뛰어난 이유도 이러한 환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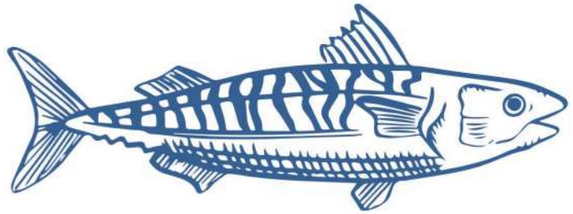
거친 바다의 쫄깃한 맛

다시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다시마 생산지라 불리는 완도, 동해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조류가 세다는 것이다. 파도는 다시마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파도가 거센 지역에서 다시마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자랄 수밖에 없는데, 물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시마는 자연스레 조직을 단단하고 굵게 만든다. 이는 식감과 연결되어 더 쫄깃하고 탱탱한 다시마가 된다.

식감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파도는 다시마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파도가 세면 영양염류의 순환이 활발한데,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가 다시마에 풍부하게 공급되는 것이다. 덕분에 다시마의 성장 속도가 빠를 뿐더러 양질의 성분을 다량 축적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자란 다시마는 식감이 단단하고, 맛이 진하며 영양은 풍부하다.





조류를 거스르며 키운 근육

고등어

고등어의 맛을 가르는 건 '어떤 먹이를 먹고 자랐느냐'가 아니다. 바로 '어떻게 움직이며 자랐느냐'다. 그리고 그 해답을 말하자면, 파도와 조류가 강한 바다에서 산 고등어가 맛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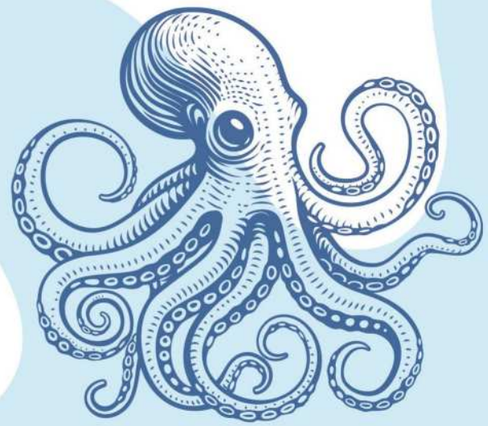
바닷속에서 고등어는 빠르고 힘차게 유영한다. 특히 산란이나 월동기가 되면 끊임없이 헤엄치는데, 이러한 활동은 고등어의 근육 발달을 촉진시키고, 지방과 단백질이 균형 있게 축적되도록 돕는다. 그 결과 살이 탄탄하고 적당히 기름기가 배게 된다. 고등어 특유의 고소함은 이러한 비결로 탄생하는 것이다. 이는 양식 고등어와 비교해보면 맛의 깊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한마디로 제주 앞바다, 울릉도, 남해안 등에서 잡힌 고등어가 맛있는 이유는 바다를 운동장 삼아 열심히 헤엄친 결과다.

파도를 즐기는 생물

문어

문어는 고요한 바다보다 파도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바위에 온몸으로 부딪히는 격정적인 곳을 좋아한다. 문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바위틈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아가기가 혹독한 환경임이 분명하다. 발판으로 단단하게 몸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떠밀려가기 십상이라 스스로 힘을 키우고 움직임이 유연해지도록 훈련한다. 그렇게 바위틈을 여러 번 오가며 몸을 숨기고, 또 먹이를 쫓는 동안 문어는 자연스럽게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

울릉도, 포항 등에서 자란 문어가 유명한 이유도 해류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 거센 파도와 함께 자란 문어는 딱 질기지 않을 정도의 탱탱한 식감을 자랑하게 된다. 특히 숙회나 초무침 등 재료 본연의 식감이 중요한 요리에서 그 빛을 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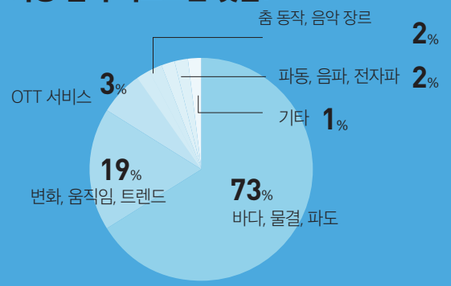
정리. 편집실

내 마음의 Wave 를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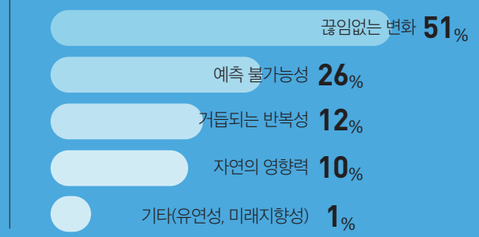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된 작은 진동은 잔잔한 물결로 번지다 끝내 파도처럼 거세진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우리를 흔들어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기도 하는데,
이 파동 속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은 무엇을 느낄까?**

응답자 수 317명

‘Wave’라는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Wave를 인생에 빗댄다면, 어떤 점에서 가장 닮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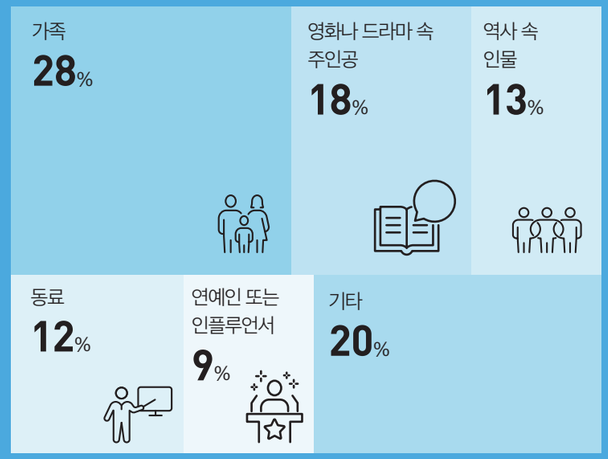
밀려오는 Wave 앞 나의 태도는?



Wave와 관련해 내가 경험해 본 것은?

SNS 파도타기 | 서핑·패들보드 등 수상스포츠 | 춤 연습 | 종일 OTT 보기 | 놀이기구 타기(아마존 익스프레스) | 야구장 파도타기 응원

나에게 영향을 미친 롤모델



삶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위대한 아티스트 ‘프리다 칼로’가 저의 롤모델입니다.

신성장전략단 **염민희**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로 최상위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페이커. 매시즌 변하는 메타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의 모습이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용담댐지사 **신동건**

하루종일 일하고도 웃음을 잃지 않는, 상사에게 혼이 나도 금세 회복하고 심지어는 ‘월요일 좋아!’라고 외치는 스폰지밥을 닮고 싶어요!

낙동강유역수도지원센터(처) **이재윤**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



직업, 진로 선택 **28%**

인간관계 변화 **25%**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 발견 **18%**

내면의 성장 **12%**

기타 **17%**

신입사원 시절 당시 별로 왕래가 없던 모 차장님(지금은 부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저를 옆에 앉혀놓고는 “회사는 똑똑한 놈 말고 스마트한 놈이 더 인정받는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로 각성하여 업무 태도가 많이 달라졌죠.

지방수도처 **이재홍**

어머니의 암 투병 생활이 삶에 대한 제 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큰 파도가 치면 두렵고 무서워 피하곤 했던 저였는데, 힘든 투병을 이겨내던 어머니의 강인함과 삶에 대한 의지를 보고 더이상 태풍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마주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강유역협력단 **배우리**

10년 전 만났던 내 동료. 조그마한 종이에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빼곡하게 적어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남서남권지사 **최윤식**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취업’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한 번 해보지 않았던 저였는데, 직장생활을 해보니 제법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금강유역협력단 **유도희**

글. 방연주 문화평론가

K-영향력, 어디까지 퍼질 것인가

우리는 숨 쉬듯 콘텐츠를 소비한다. 콘텐츠를 보며 웃고, 울고, 설레고, 긴장하고, 공감한다. 디지털 전환과 OTT의 대중화는 콘텐츠의 힘을 더욱 키웠다. 넷플릭스를 켜면 한국 드라마가 첫 화면을 장식하고, 외국인이 K-팝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다. 해외 무대에서 박수를 받는 국내 작품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른바 'K-콘텐츠'는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이제는 세계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콘텐츠의 선두주자 K-드라마의 시작은 일본에서 비롯됐다. 배용준·최지우 주연의 드라마 <겨울연가>(2002)는 일본에서 공개되자 '욘사마', '지우히메'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현빈·손예진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2019)이 '한드 재유행'을 이끌었고, K-팝 가수들도 바통을 이어받아 충성도 높은 팬덤을 형성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장악했다. 빈부 격차와 냉혹한 경쟁사회를 '달고나 뽑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전통놀이로 은유한 <오징어 게임>은 공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남아 있다. 시즌1은 공개 후 28일 만에 누적 시청 시간 16억 5,045만 시간으로 기록을 세웠고, 그중 약 95%가 해외 시청이었다. 미국 에미상에서 6관왕을 수상했으며, 지난 27일 공개된 시즌3 예고편은 공개 6시간 만에 조회수 400만 뷰를 돌파하며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다시금 입증했다. 이러한 흥행의 배경에는 섬세한 감정선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서사, 한국적 특수성을 보편적 공감으로 풀어낸 스토리텔링이 있었다. 국적과 무관하게 '느껴지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드라마, 영화, 음악에 비해 예능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 높아 해외 흥행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실험적인 포맷과 소재로 이를 극복하며 해외 리메이크와 공동제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OTT의 대중화는 K-예능의 외연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규모 제작비와 글로벌 유통망을 기반으로 <피지컬 : 100>, <데블스 플랜>, <솔로지옥> 같은 서바이벌·연애 리얼리티뿐 아니라 <흑백 요리사 : 요리계급전쟁> 같은 참신한 소재의 프로그램도 주목받았다. 배우 나탈리 포트만이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흑백요리사>를 즐겨 본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출연진의 국적과 배경 또한 경계를 넘고 있다. "언니들 싸움이다."라는 유행어를 만든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글로벌 버전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재탄생해 외국인 크루들과 함께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OTT 플랫폼 'ABEMA'에서는 종합 랭킹 TOP 20에 올랐고, 중국 아이치이, 베트남 FPT플레이 등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개인의 취향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국경 없는 콘텐츠 소비는 일상이 되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K-콘텐츠는 장르, 소재, 메시지를 유연하게 확장하며 세계인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특히 OTT 플랫폼의 등장은 물리적 거리와 언어 장벽을 허물며, 콘텐츠가 도달할 수 있는 경계를 폭발적으로 넓혔다.

K-팝은 더이상 음악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팬과의 관계, 메시지 전달, 사회적 영향력 등 다층적인 요소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 K-팝 그룹 BTS는 2018년 유엔(UN) 연설에서 RM이 전한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 SNS를 타고 퍼지며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었다. 팬클럽 '아미(ARMY)'는 환경 보호, 재난 구호, 인권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팬을 넘어 '문화 실천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음반 판매량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며 일각에서는 K-팝의 열기가 식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지만, 월드 투어의 흥행은 이를 반박한다. 팬데믹 이후 대면 공연에 대한 폭발적 수요와 맞물려, BTS 제이홉의 전역 후 첫 솔로 투어는 15개국에서 전석 매진됐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도 전 세계 34개국에서 약 2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마지막으로 K-뮤지컬도 세계무대의 높은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 국내 뮤지컬은 오랫동안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작품의 라이선스 공연에 의존해 왔으나, 창작 뮤지컬 <빨래>가 일본과 중국에 수출되며 물꼬를 텄다. 그러나 현지화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런 가운데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지난 6월 미국 토니상에서 6관왕을 수상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한국 창작 뮤지컬의 가능성을 세계에 각인시켰다.
개인의 취향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국경 없는 콘텐츠 소비는 일상이 되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K-콘텐츠는 장르, 소재, 메시지를 유연하게 확장하며 세계인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특히 OTT 플랫폼의 등장은 물리적 거리와 언어 장벽을 허물며, 콘텐츠가 도달할 수 있는 경계를 폭발적으로 넓혔다. '무엇을 볼까'보다 'K-콘텐츠가 또 어떤 감동을 줄까'를 기대하게 된 지금, K-콘텐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감정과 감정을 잇는 새로운 문화 언어다. 이 연결은 오늘도 더 넓고, 더 깊게 세계를 흐르고 있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희망을 퍼트리는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또 다른 별명은 '불멸의 마라토너'이다.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긍정을 발판 삼아 달리는 이봉주 선수가 한국수자원공사 마라톤 동호회 '띠어유'와 함께 충주에 떴다. 희망을 향한 이들의 레이스를 담았다.



우연으로, 하지만 운명처럼

1996 애틀랜타올림픽 은메달, 1998 방콕아시안게임 금메달, 2001 보스턴마라톤 우승, 2002 부산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이봉주 선수가 아로새긴 기록은 찬란하다. 그가 2000 도쿄국제마라톤에서 세운 한국 신기록(2시간 7분 20초)은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어지지 않는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 선수가 마라톤을 시작한지도 올해로 어느덧 40년, 그중 30년을 '국민 마라토너'라고 불리고 있다. 이제는 '마라톤이 없는 인생'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마라톤이 자신의 인생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에 '달리기'는 없었다. 고작 해야 동네에서 친구들과 노느라 뛰어 다니던 게 전부였다. 그러던 그가 '마라톤'의 길을 걷게 된 건 친구의 권유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제안에 따라 특별활동으로 육상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스피드는 좀 떨어졌는데, 지구력이 좋더라고요. 초등학생 시절 등하굣길에 그렇게 뛰어다니던 게 훈련이 됐나 봐요."라며 장난 궂게 웃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출전한 전국체전 육상 10km에서 3위에 오른 게 결정적인 한방이었다. 그 계기로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서울시립대에 입학, 서울시청팀까지 입단하게 됐다.



기적을 향해 달리는 사람

본격적으로 마라톤 선수로 인생을 살게 됐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다. "제가 평발에다 왼발이 오른발보다 4mm 정도 큰 짝발이에요. 게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던 다른 선수들에 비해 시작이 늦었으니 악조건만 두루 갖춘 셈이었죠." 답은 훈련밖에 없었다. 남들보다 일찍 눈을 떠 운동을 시작했고, 늦게까지 남아 훈련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 있었다. 그럴 땐 "포기하지 말고 태극마크를 꼭 달아라."라고 말하며 자신을 믿어주던 코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한 발을 내딛었다.

1996 애틀랜타올림픽에서 비로소 은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고작 3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게 억울할 법도 한데 그는 세상이 떠나갈 듯 환호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겠지만 돌이켜 보면 그때 금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더 오래 선수생활을 할 수 있었단다. 여전히 목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 선수는 긍정적인 사고를 발판 삼아 무려 마라톤 대회 44회 출전, 41회 완주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고 선수 생활을 은퇴했다.

시련은 또 한 번 그를 덮쳤다. 2020년 근육긴장이상증이라는 난치병 진단을 받고 4년을 넘게 고생했다. 두 다리가 자산이던 마라톤 선수에게 뛰는 건 물론 걷기도 쉽지 않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물러나지 않았다. 그의 옆을 지키는 가족들과 팬들의 응원에 힘을 입어 피나는 재활을 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어섰고, 여전히 '마라토너'로서 달리는 삶을 사는 중이다.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봉주 선수. 그와 나눈 이야기 속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끝이 있기 마련이라는 걸 알게 됐다. 중요한 건 완주는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거다. 때로 삶이 그저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진다면 그가 달려온 길을 보자. 그가 몸소 밝히고 있는 불빛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는 끝내 완주해낼 테니까.

Q. ___ 올해 마라토너로 데뷔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요.

A ___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던 게 1986년이니 벌써 40년이 됐네요. 당시만 해도 이렇게 오래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라톤 대회를 준비할 때 훈련 기간동안 매일 20~40km를 달리거든요. 에너지 소모량이 어마어마해요. 몸이 회복할 만큼의 휴식 기간도 가져야 하다 보니 일 년에 두 번 이상 대회에 나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제가 대회에 44번을 출전했거든요. 41번 완주했고요. 보통 선수들은 삼십대 중반이면 은퇴를 해요. 게다가 선수시절 워낙 힘들게 훈련했다 보니 "은퇴 후 운동은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여전히 달리기가 즐거워요. 지금도 집 근처 공원이나 가까운 산에서 매일 달려요. 예전처럼 오래 뛰지는 못해도 틈날 때마다 달리면 기분이 좋아요. 달리기는 여전히 제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Q. ___ 마라톤을 하면 길 위에서 꽤 오래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달리는 동안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나요.

A ___ 선수 때는 참 치열하게 달렸어요. 제 가슴에 태극마크가 달려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해 달리다 보니 한시도 마음 편히 달려본 적이 없어요. 30분 이상 달리면 어느 순간 '러너스 하이'라는 행복감이 찾아온다고도 하던데, 그마저도 한번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느껴지잖아요.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풍경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던데요, 뭘. 그러다 은퇴 후에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어요. 몇 년 전 몸이 안 좋아 고생을 하고 난 뒤부터 '나'를 위해 달리기 시작했죠. 짧은 거리라도 달릴 수 있다는 자체가 '참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Q. ___ 선수 생활 중 힘든 순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A ___ 저는 긍정의 힘을 믿어요. '언젠가 좋아지겠지'라는 마음이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요. 선수 시절 경기가 제 뜻대로 풀릴지 않을 때, 기록이 좀체 나지 않을 때는 물론 은퇴 이후 희귀병이 저를 찾아왔을 때에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라는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해요. 물론 절망적일 때도 있죠. 그럴 땐 코치나 동료, 가족과 팬들의 응원 한 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Q. ___ 선수로서 달린 거리만 지구 네 바퀴 반이라고요. 그간 달렸던 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코스는 어디인가요.

A ___ 춘천 마라톤이 가장 기억에 나요. 기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요(웃음). 호반을 끼고 달리며 바라본 풍광이 기가 막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달린 충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충주를 달려본 건 처음이거든요. 충주 탄금호 무지개길을 달리니 마치 물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탄금호에서 조정 훈련을 하는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는 기분도 들었고요. 조명이 켜진 밤에도 예쁠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해가 진 저녁에도 달려보려고요.

Q. ___ 오늘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어떤 시간이었는지요.

A ___ 평소 마라톤을 즐기던 분들이라 그런지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햇볕이 뜨거워 힘들었을 법도 한데 모두 '파이팅' 하며 서로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모습에 저까지 업 됐어요. 중간중간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마라톤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아니라 '마라톤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Q. ___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요즘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마라톤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A ___ 마라톤은 다른 운동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요. 전문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정 장소에 가야하는 것도 아니죠. 편한 옷차림에 운동화만 신고 집 밖을 나가면 어디든 달릴 수 있잖아요. 게다가 달리는 동안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완주' 했다는 쾌감을 한 번 맛보면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Q. ___ 흔히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는데요. 마라토너로서 공감하시는지요.

A ___ 인생과 마라톤은 많은 부분에서 닮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마라톤도 마찬가지거든요. 레이스 중 '도대체 끝이 있는 걸까' 싶을 정도로 오르막길이 이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내리막길을 만나서 가속도가 붙죠. 중요한 건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순위에 들지 않더라도, 기록 경신에 실패하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처럼요. 마라톤에서 진정한 승자는 1등이 아니라 '완주자'거든요. 여러분도 모두 자신의 인생을 '완주'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영상. 노재준

안동의 자랑이요?
월영교, 간고등어, 그리고 안동권지사



let's go.

우리 함께라서 더 '느낌 좋은' 안동권지사

한국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가진 도시 안동에는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한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안동권지사'가 있다. 서로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수타벅스를 향해 외쳤다. "우리 함께라서 정말 든든해요!" 서로를 향한 응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수타벅스가 안동권지사로 출발했다.



'지역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낙동강 유역 전체 용수공급의 약 49%, 홍수조절의 30%, 수력발전의 53%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댐과 임하댐. 안동권지사는 낙동강 유역에서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두 다목적댐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지사 중 유일하게 대형 다목적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동권지사는 지역의 '안전'을 위해 시설 노후화, 자연재해 등 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해 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과 '동행'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기 위해 여러 주민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글배달교실 등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견인하고 있다.

지역을 위해 힘을 쏟는 이들은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더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까지 넘어오면서 낮부터 하늘이 어둡고 붉었어요. 바람도 세고, 매캐한 냄새도 심했죠. 그러다 퇴근시간 쯤에 임하댐 사무소 근처까지 불이 번지는 걸 보고 급하게 대피를 했어요. 대피 차량이 몰리면서 위험 지역을 벗어나는 데만 세 시간이 넘게 걸렸어요."라며 이성수 사원이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홍수기가 다가오고 있었기에 더욱 빠른 복구가 시급했다. 직원들은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피해 현황을 살피고 전기, 통신망을 비롯해 수력발전기를 긴급 복구하며 초동 조치를 끝냈다. 이후 긴급복구공사, 화재로 인한 소실 설비 교체까지 막힘없이 진행해 모든 복구를 완료했다.





오늘은 일단 즐기자!

홍수기 대응에 산불복구 업무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던 동료들을 위해 배하원 사원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수타벅스가 온다는 소식에 일주일 전부터 직원들이 모두 들떠 있었어요. 어제는 퇴근길에 ‘내일 꼭 텀블러 챙겨 와!’ 하며 서로 챙겨 주기도 했죠.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혹시 수타벅스가 못 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노심초사하던 그의 걱정이 무색하게 수타벅스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자 마치 직원들을 반기기라도 하듯 거짓말처럼 날이 개기 시작했다.

시원한 음료와 곁들일 오늘의 간식은 머핀. 직원들은 손바닥보다 큰 머핀을 들고 “와! 진짜 크다!”,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라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동료들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던 배하원 사원은 “사실 이번 수타벅스는 저 혼자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박유경 대리님이 함께 신청을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급한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직원들이 정말 좋아했다는 소식을 꼭 전해 줘야겠어요!”라며 뿌듯하게 이야기했다. 수타벅스와 함께 인증샷을 찍기에 여념이 없던 직원들을 바라보던 최세광 지사장이 “여기 다 같이 한번 서 봐요!” 하며 동료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서로의 눈빛이 참 따뜻했다.

2025년 하반기로 본격 접어드는 지금, 안동권지사의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안동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무사 착공했고, 저수구역 내 지장가옥 철거 공사를 하는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최고 안전’을 위해 달려갈 이들의 앞길에 수타벅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길 바란다.



최세광 지사장이
“여기 다 같이 한번 서 봐요!”
하며 동료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서로의 눈빛이 참 따뜻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안동권지사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 보세요.



Mini-Interview



배하원 사원

여러분과 함께라서 든든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커피 한잔에 즐거워하던 동료들을 보니 ‘다음엔 또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야 하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웃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최고예요!



최유정 인턴

수타벅스가 저희 지사에 온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 믿지 않았어요. 유튜브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하원 선배님 덕분에 신선한 경험을 했어요. 커피와 머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신정범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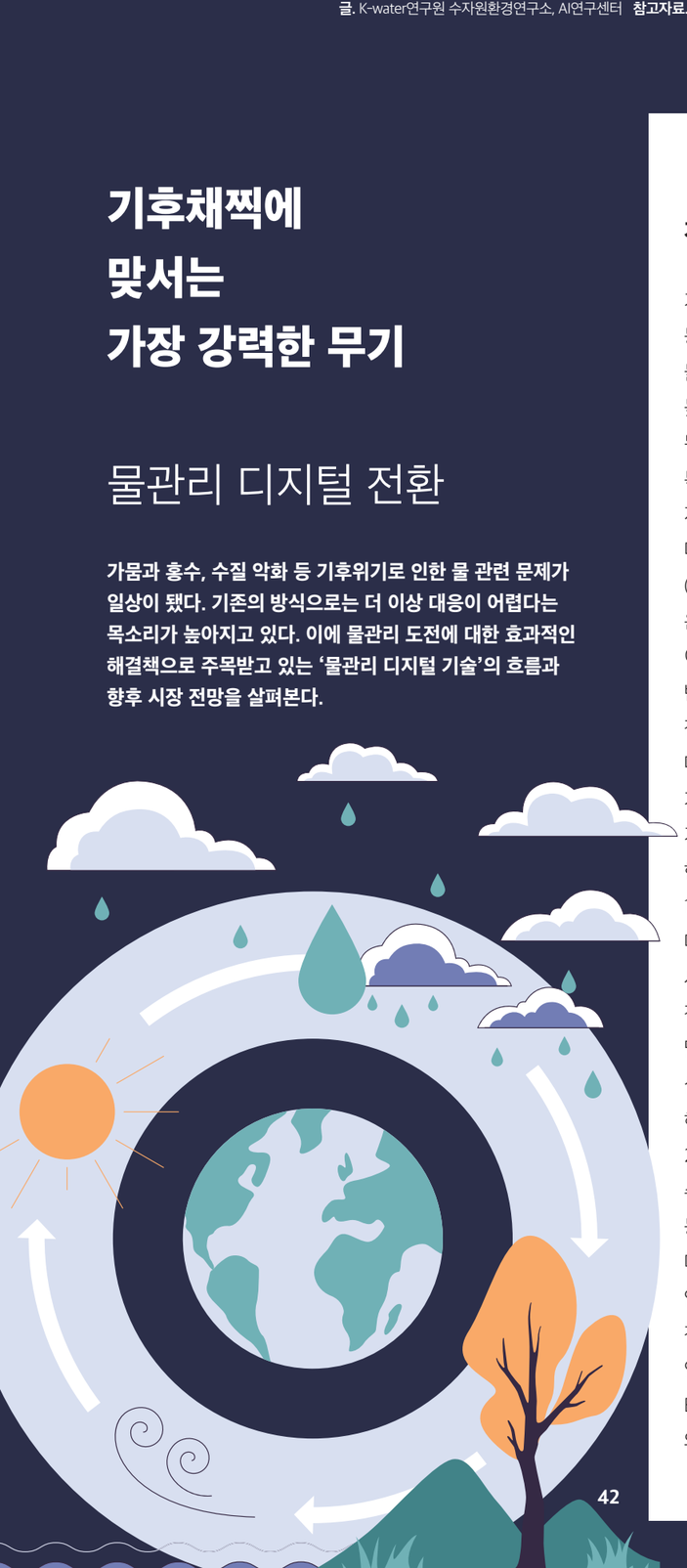
안동권지사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직원들’입니다. 직원 분들의 책임감과 열정이 안동권지사를 빛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이 닥칠 때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모두 사랑합니다.

글. K-water연구원 수자원환경연구소, AI연구센터 **참고자료.** 『Water & Tech INSIGHT』(4월호)

기후채찍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

물관리 디지털 전환

가뭄과 홍수, 수질 악화 등 기후위기로 인한 물 관련 문제가 일상이 됐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물관리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관리 디지털 기술'의 흐름과 향후 시장 전망을 살펴본다.



기후위기로 인한 물관리 여건 악화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 현상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물을 관리하는 데 드는 난이도와 복잡성 또한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분야 중 하나로 물관리가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오랜 가뭄 끝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는 등 상반된 극한 기상 현상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기상이 빠르게 뒤바뀌는 현상은 '기후채찍(Hydroclimate Whiplash)'이라 불린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기후 양상은 기존의 물관리 시스템으로는 더이상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한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시스템의 필요성과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여겨졌던 대형 댐들 또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대형 댐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지금은 준공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노후시설이 많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수지 내 퇴적물이 쌓이고, 댐의 구조적 안정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제대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노후화로 인해 2050년까지 전 세계 대형 댐의 유효 저수 용량은 약 26%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기후변화로 물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의 기반 시설은 오히려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첨단산업의 급성장도 물 수요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산업은 발전하고 있으나, 정작 물공급 시스템은 설비 노후화와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조차도 물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 고령화와 대규모 은퇴로 인해 인력 공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물관리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는 물 부족, 극한 기후, 노후 인프라, 인력 공백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인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채찍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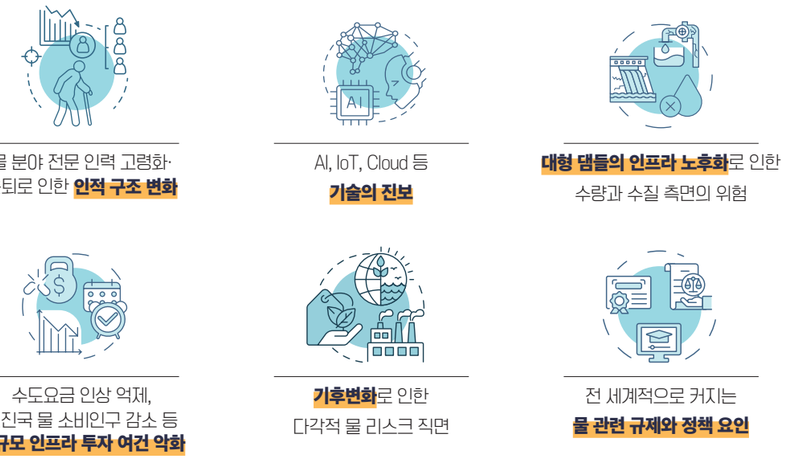
물관리 도전, 디지털 기술이 해낼 것인가

기후위기와 물 부족, 노후 인프라, 인력 공백이라는 복합적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디지털 기술로서 물관리 도전에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로, 디지털 기술은 극한 가뭄과 홍수 같은 기후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가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이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물관리 시스템과 동일한 가상 공간을 구축하여,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반응을 사전에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 속에서도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디지털트윈 기술은, 물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로, 디지털 기술은 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전반의 효율화를 이끌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처리 공정에 AI 기반의 자율운영 체계를 도입하면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며, 전반적인 공정 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다. 더불어, IoT 센서를 통해 압력, 유량, 수질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AI로 분석함으로써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설비의 이상 여부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물관리 디지털 전환 촉진 요인



출처 : Bluefield Reserch(Global Digital Water Market Forecast 2022-2030, 2022)

세 번째로 위성,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정밀 관측은 물관리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킨다. 원수의 수질을 예측하고, 미량의 오염물질조차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기후재해 대응력 향상, 생산·공급 효율화, 오염 조기 감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물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플랫폼 Digital GA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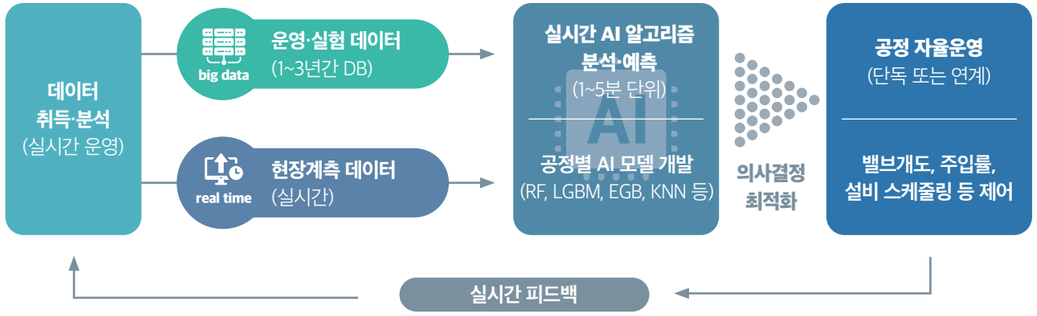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디지털 기술

한국수자원공사는 극한 기상이변에 대응하고자 물관리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먼저 댐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의 물관리 플랫폼 'Digital GARAM+'을 개발했다. 이는 댐과 하천의 실시간 기상, 수문 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해 가상과 현실 세계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두 번째는 정수장의 핵심 영역별로 AI 기술을 도입, AI 정수장을 구현했다. 수량, 수질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 AI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예측하는 스마트 정수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8개 정수처리 공정을 단독 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로써 에너지 사용 최적화, 사고 위험 최소화 등의 효과를 견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oT, AI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관망관리 솔루션(SWNM)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연간 1.1억 m^3의 누수를 저감할 수 있으며, 수질이상 등 사고발생 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현재 SWNM은 국내 82개 지자체 사업에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기술을 확산 추진 중이다.

AI 정수장의 자율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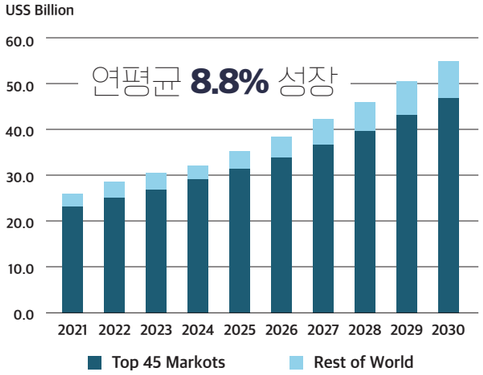
향후 물관리 디지털 시장의 전망

디지털 물관리는 글로벌 물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기존 물시장에 비해 3배가량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Bluefield Research>에 따르면, 전체 물 시장은 연평균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디지털 물관리 분야는 연평균 8.8% 성장하여 2030년에는 73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일찍이 물 인프라가 구축된 선진국 중심으로 주도될 것으로 전망되나, 각 국가별 수도 산업의 분산 수준, 디지털 기술의 성숙도 등에 따라 시장별 차별화된 디지털 물관리 사업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물시장은 전통적 물 기업을 넘어 구글, MS 등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 Siemens, Schneider Electric, ABB 등의 산업 인프라 기업, Oracle, Autodesk 등의 전문 IT 기업까지 산업 각 분야별 디지털 기술의 강자가 모두 참전함으로써 산업 영역과 경계가 모호화되는 빅블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반복적인 기후재난과 인프라 노후화 등의 여건 악화로 각 국가 물관리의 근원적인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디지털 물관리 기술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장의 선점을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고민은 물론, 물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에도 집중이 필요한 시점. 한국수자원공사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3대 초격차 기술을 시작으로 국내 스타트업과의 협업 등의 노력을 통해 글로벌 물관리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물관리 시장 전망



출처 : Bluefield Reserch
(Global Digital Water Market Forecast 2022-2030, 2022)

QR코드를 스캔하여 K-water연구원의 『Water & Tech INSIGHT』 최신호를 만나보세요.



디지털트윈으로 구현된 화성정수장 전경

글. 편집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01

홍수기에 앞서 재난안전 실전 체제 돌입

전사 재난대책 점검회의

극한 강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홍수기,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6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사 재난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전사 대응실전 체제에 돌입했다.

본사와 본부, 전국 부서장 등 총 138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장마 및 기상 전망, 댐 운영 및 부유물 처리계획, 풍수해 대응 및 종합상황 관리, 수도시설 위기관리, 건설 현장 안전대책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본격적인 홍수기 진입에 앞서 전국 381개 수자원 및 수도시설과 336개 건설 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이어 전국 98개 부서에서 시설사고 및 피해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위기대응 역량을 높였으며, 국가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전국 55개 댐·보의 수문과 비상 방류설비에 대한 동작 시험을 하는 등 사전 점검 또한 완벽하게 마쳤다. 한편, 비상 상황 시 복구 체계와 비상 급수 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위기 시 국민의 기본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홍수기 속에서도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02

베트남 물시장 진출 본격화

베트남 사이공수도공사와 상수도사업 협력 확대

지난 5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베트남 호찌민시 상수도 공기업인 사이공수도공사와 상수도사업 협력 및 디지털 물관리 기술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의 호찌민시는 베트남 총생산(GDP)의 약 20% 수준을 차지하는 경제·산업의 중심지로, 도시 확장으로 인해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대응하고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다수의 신규 상수도 공급사업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지의 수요에 맞춰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사업 협력, 디지털 기반 물관리 기술 도입, 상호 기술 진단 및 인적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 등 사이공수도공사와의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이공수도공사가 관리 중인 현지 정수장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과 현지 맞춤 기술 접목에 협력하게 된다. 또한, 호찌민을 중심으로 신규 협력사업 발굴 확대를 위해 스마트 관망관리(SWNM), AI 정수장 등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시범도입하고, 현지 마케팅 및 지역 수출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는 동남아 경제 성장의 핵심축이자 지속가능한 물관리 해법에 대한 수요가 높은 베트남과의 협업으로 한국형 스마트물관리 모델을 현지에 최적화 시키고 동시에 물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01 단양군 폐천부지 친환경 활용협약 체결



지난 6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충청북도, 단양군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지역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양군은 고수동굴,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도심지 내 다수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1,000만 관람객이 방문하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충주댐 주변의 유휴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친화적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폐천부지 내 친환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필요사항 이행, 폐천부지를 활용한 단양군 추진 사업 관련 토지 사용 및 매각 관련 행정적 지원, 그 밖의 지역발전 필요사항 지원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앞으로도 단양군을 비롯한 댐 주변지역이 일류 지역으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02 SK하이닉스에 대규모 수력 에너지 공급



지난 5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SK하이닉스와 남강댐 수력발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수자원공사는 6월 1일부터 남강댐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친환경 에너지를 SK하이닉스에 직접전력거래 방식으로 공급하게 됐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남강 수력발전소는 18MW 용량의 대규모 수력 발전설비로 연간 66,954MWh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며, 이는 약 2만 3,000여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력발전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진행하는 직접전력거래 협약으로, SK하이닉스의 탄소 배출 저감과 RE100 달성을 지원함으로써 무역장벽 해소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03 미래 세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물관리 공감대 확대



지난 6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 발대식을 열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략 및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해 미래 세대의 관심사와 기대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맞춤형 활동과 3대 초격차 기술의 경쟁력 등 청년들의 질문에 직접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물관리종합상황실에서 3대 초격차 기술인 물관리 디지털트윈 기술을 소개하며, 청년들이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물 재해 위협에 맞선 과학적 물관리의 중요성도 체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부터 건설, 금융,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구성원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7월부터 1년간 물관리와 관련한 현장 체험 및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주요사업과 현안에 새로운 시각을 더할 예정이다.

04 제46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참가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전시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이하 엔벡스)'가 진행됐다. 1979년에 시작해 올해로 46회를 맞이한 엔벡스는 국내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 가운데 가장 역사가 긴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13개국, 262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총 626 부스의 규모로 진행됐다. 올해 전시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S 멤브레인), 에너지 절감형 수처리 기기,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다양한 유망 녹색기술이 소개되었다. 그중 한국수자원공사 부스에서는 공사 주요사업, 3대 초격차 기술, 글로벌 선도기술, 물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단계별 지원제도 등을 홍보했으며, 지난 6월 12일에는 물산업 구매 상담회를 통해 국내 환경기업과의 1:1 매칭으로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Water Lounge

글. 채청비 **사진.** 박갑순

물이 있어 더욱 찬란한 풍경

뮤지엄산

천혜의 자연을 품은 강원도는 예술의 스케일도 남다르다. 특히 '원주 여행코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뮤지엄산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예술적인 풍경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을 비현실적인 장면으로 바꾸어주는 한 끗 차이는 '물'이다. 물이 있어 더욱 찬란한 뮤지엄산을 소개한다.

자연과 예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공간

강원도 원주 한솔오크밸리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크기만으로도 압도되는 거대한 미술관 뮤지엄산(Museum SAN)이 등장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100선'에도 뽑힌 뮤지엄산은 미니멀리즘의 대가라고 불리는 전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설계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자연광이 깊숙이 스며드는 건축적 설계는 공간 전체에 예술적인 감각을 더하는데, 웰컴센터를 나서면 왼쪽에는 십자 모양으로 조각된 빛을 마주할 수 있는 빛의 공간이, 오른쪽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플라워 가든이 있다.

신라 고분을 모티브로 만든 돌산이나 플라워 가든에 이어진 고분 형태의 언덕을 바라보면서 산책하면, 곧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워터 가든이 눈에 들어온다. 현실과 비현실, 자연과 예술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희미하게 만든 뮤지엄산답게 건물이 물에 잠긴 것인지, 물 위에 놓인 것인지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본관에서는 국내 최초의 종이 전문 박물관인 페이퍼 갤러리,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무덤이 있는 스톤 가든, 고요하게 비워낼 수 있는 명상관, 그리고 빛의 예술가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제임스 터렐관까지 둘러볼 수 있다. 이 공간들을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알렉산더 리버만, 아치 웨이(Arch way), 1997

Museum SAN







**뮤지엄산에서 '물'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공간 전체를 연결하는 포인트가 된다.
곳곳에 배치된 얕은 물은 관람 동선과 전시 공간 사이의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며, 예술과 자연, 건축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예술이 물이 되고, 물이 예술이 되는 정원
워터 가든

워터 가든은 안도 다다오 특유의 건축 철학이 담긴 공간이다. 안도 다다오는 자연물을 건축에 적극 도입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과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 울창하고 밝은 숲, 화려하게 피어난 꽃,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단지 돌, 물, 바람 등과 같은 자연의 요소를 재배치하는 것이 그의 특성이다. 워터 가든도 마찬가지다. 먼 곳에서 봤을 때는 깊고 차가워 보이는 물이 건축물을 받치고 있는 듯하다. 바람이나 빛에 따라 잔물결을 엿볼 수도 있지만, 아래에 깔린 까만 해미석으로 인해 물의 활발한 움직임보다는 마치 고요한 내면처럼 잔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이 연출은 본관으로까지 이어진다. 얕은 물은 본관의 건물 이곳저곳을 감싸고 있다. 돌벽을 쌓아 물을 나누기도 하고 거리 곳곳에 연못을 만들어 두기도 했는데, 뮤지엄산의 독특한 미학은 이곳에서 발휘된다. 물과 함께 있는 건 건축물뿐 아니라 멀리서도 존재감이 빼어난 예술품 '아치 웨이(Arch way)'이다. 물의 표면이 너무나 잔잔하기에 아치 웨이의 화려함이 더욱 드러나며, 하늘, 구름, 건물까지 거울처럼 비추어내 현실과 비현실 사이를 오가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자연과 함께 들이키는 커피 한 모금
카페테라스(Cafe Terr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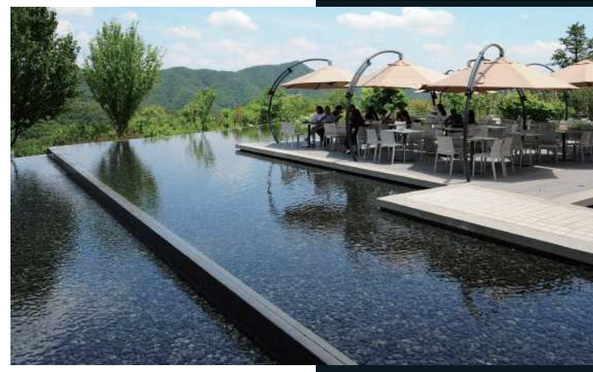
카페테라스는 뮤지엄산의 대표적인 포토스폿이다. 야외 공간이 훤히 트여 있어 사계절의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산책하다가 지친 다리에 자유를 선사하는 편한 의자, 허기를 달래기 좋은 샌드위치, 디저트, 커피 등이 있어 잠시 쉬어갈 수 있다.

배우 공유의 커피 브랜드 광고 촬영지로 유명세를 더한 이곳은 커피를 계산하고 나가면, 밖으로 보이는 투명한 물에 절로 카메라를 들게 된다. 중요한 지점은 관람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커다란 울타리 없이 그저 놓여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관람자는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면서도 물에 반사된 천혜의 자연과 고요한 물결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듯 뮤지엄산은 걸을 때도, 예술품을 관람할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익숙하게 물을 마주할 수 있다. 물 덕분에 뮤지엄산에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느낄 수 있고, 사색에 잠기거나 고요하게 명상할 수 있다.

뮤지엄산에서 '물'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공간 전체를 연결하는 포인트가 된다. 곳곳에 배치된 얕은 물은 관람 동선과 전시 공간 사이의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며, 예술과 자연, 건축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러한 설계는 '자연 속의 미술관'이라는 뮤지엄산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준다. 즉, 물은 뮤지엄산의 미학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셈이다.





뮤지엄산

A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260
H 매일 10:00~18:00(매주 월요일 휴무)
P 대인 23,000원 / 소인 15,000원
T 0507-1430-9001

카페테라스(Cafe Terrace)

A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산129-5
H 평일 10:30~20:30, 주말 09:30~20:00

글. 전채은 동아일보 기자



전채은 동아일보 기자

바다를 부탁해

지난해 11월 부산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 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렸습니다. 일주일간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제품 디자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종료됐죠. 특히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우려 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안시키지 못한 플라스틱 협약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INC-5.2가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열립니다. 그런데 최근 INC-5.2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에서 95개 유엔 회원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제3차 유엔해양총회에서의 일입니다.

6월 10일 유엔해양총회가 열린 프랑스 니스에서는 '야심찬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니스의 경고'(The Nice Wake Up Call for an Ambitious Plastics Treaty)라는 제목의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바다야말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곳이기 때문이지요. 선언문은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감축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차 플라스틱 중합체의 생산 및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갱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죠. 선언문에는 또 가장 유해한 플라스틱 제품과 그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협약 당사국회의(COP)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해당 목록을 확대할 수 있으며,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선언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G7 국가 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이 서명했고 유럽연합(EU)은 전체 회원국이 공동 서명했죠. 이에 대해 국내 환경단체는 "새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한 국제 흐름에 동참하고, 8월 플라스틱 협약 도출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다를 괴롭게 하는 것은 플라스틱 말고도 또 있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바다 수온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먼바다, 까마득한 심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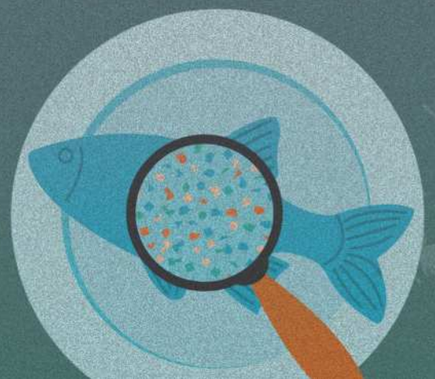
해파리 쏘임 사고

2023년

5.6 배

2024년

4,224 건



한여름 바닷가에는 시원한 파도를 즐기려는 인파가 가득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해변에 자꾸 해파리 떼가 출몰하면서 피서객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 환경 변화로 해파리 개체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어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민들은 "여름에는 생선보다 해파리가 더 많이 잡힌다."라며 하소연하죠.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6월 4일 올해 처음으로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부산과 경남 등 남해안에 ㏊당 300마리 이상의 보름달물해파리가 발견되면서 예비주의보 특보가 발표된 겁니다. 쏘임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9월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는 총 4,224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 753건의 약 5.6배입니다.

따뜻한 바다를 선호하는 해파리에게 지구온난화로 데워진 수온은 더없이 좋은 서식 환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해역은 유독 수온 상승이 가파른 편이어서 올해도 우리 바다의 표층 수온은 평년과 비교해 1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 4~5일 제주에서 열린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는 제주에 사는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매만지며 한 어린이는 "이제 바다에 가기 무서워질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다가 그리워지는 본격 여름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맨몸으로 뛰놀던 바다를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려면 지금 당장, 바다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한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해역은 유독 수온 상승이 가파른 편이어서 올해도 우리 바다의 표층 수온은 평년과 비교해 1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 조수빈 그림. 추관소

푸른 바다의 정령 세이렌

물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처럼 세이렌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온 존재다. 신화를 비롯해 미술작품, 동화, 카페 로고 등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그 어디에도 없는 인물, 세이렌을 이야기한다.



사람을 홀린 묘령의 존재

신화 속에는 늘 사람들을 홀리는 존재가 있었다. 수많은 마녀, 요정들 사이에서 단지 목소리만으로 사람들을 유혹한 아름답고도 위험한 존재는 그리스 신화 속 세이렌이다. 세이렌은 강의 신 아켈로스와 비극의 여신 멜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세 명의 자매로 매혹적인 목소리로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특히 그들의 음악적 재능은 너무 뛰어나 바람마저 진정시킬 정도였고, 그 어떤 선원이라도 노래하는 세이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 세이렌은 해안 바위틈에서 고혹의 노래로 선원들을 유인해 배를 난파시키는 잔혹한 장난을 즐겼다. 한마디로 유혹과 파멸의 상징이었다. 『오디세이』에서는 '세이렌은 그들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을 매혹시키며, 인간들의 해골이 높이 쌓여 있는 바위 위에 앉아 있다'라고 묘사했다.

이 당시만 해도 세이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인어'의 형상이 아니었다. 기원전 4세기의 글에서는 여성의 얼굴, 새의 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곤 했다.

그런 세이렌이 지금의 매혹적인 인어가 된 건 '신비로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한다'라는 대목에 따라 여성성이 강조되면서부터다. 중세 후반 미술작품에 표현된 세이렌은 여성의 상체에 물고기의 꼬리가 합쳐진 인어가 되어 있었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노랫소리로 남자를 유혹해 죽게 만드는 '팜므파탈'의 이미지까지 갖게 됐다. 심지어는 부정적인 존재가 되기도 했다. 특히 당시 기독교에서 여성의 성적 매력은 남성을 타락시키는 위험한 힘이라고 여겼는데, 인어에 얽힌 전설이 겹치며 죄와 타락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의 교회나 수도원 장식에 인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수도사나 신자들을 경고하는 목적이었다고.

낭만주의 시대 속 인어는 깊은 감정과 내면의 갈등을 가진 존재로, 더이상 유혹의 대상이 아닌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순수하고 고귀한 존재가 된 것이다.

파멸에서 희생으로, 희생에서 자유로

세이렌의 이미지가 바뀌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면서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 덕분이다. 동화 속에서 인어는 자신의 사랑을 위해 목소리를 포기하고 끝내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거품이 된다. 낭만주의 시대 속 인어는 깊은 감정과 내면의 갈등을 가진 존재로, 더이상 유혹의 대상이 아닌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순수하고 고귀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로부터 150여 년이 지난 1989년, 디즈니에서 선보인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는 인어의 이미지를 바꾸는 결정타가 됐다. 호기심 많은 소녀 아리엘은 자기 꿈을 위해 바다를 벗어나고자 한다. 원작의 비극과는 달리 아리엘은 자신의 사랑을 이루고 인간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디즈니의 세계적인 인기를 등에 업고 인어는 주체적인 캐릭터로 대중들에게 강하게 인식됐다. 이후 여러 콘텐츠에서 인어는 모험, 자유, 호기심, 순수함 등을 상징하는 존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의 바위섬에서 노래로서 뱃사람들을 유혹하던 세이렌이 성장 캐릭터인 인어공주가 되기까지. 시간이 지나면 세이렌의 이미지는 또 다르게 바뀌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신화 속에는 인간이 시대마다 품어온 욕망과 이상이 담겨 있는 것 아닐까.

글. 편집실 사진. 한국관광공사, 영주시



부석사

국내 현존 최고(最古)의 목조건물 중 하나인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을 비롯해 국보 5건, 보물 9건, 도유형문화유산 2건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무량수전 서쪽에 큰 바위가 아래 바위와 서로 붙지 않고 떠 있어 '뜬 돌'이라 부른 데서 부석사(浮石寺)라 이름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의 아름다움과 함께 무량수전 옆 석탑에 앉아 소백산맥의 푸릇한 산세를 감상해보자.

풍기역

서울역 출발

KTX-이음 705편

서울(08:57), 청량리(09:18), 원주(10:12), 제천(10:30)

부전역 출발

ITX-마음 1202편

부전(07:16), 대화강(08:21), 경주(08:52)



영주댐 물결 따라 철길 따라 선비의 고장 영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철도공사, 영주시와 함께 댐 주변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차여행 이벤트 상품인 '힐링 영주댐 여행'을 출시했다. '힐링 영주댐 여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영주댐과, 부석사를 비롯한 영주시의 주요 관광명소를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운행과 연계한 당일 기차여행 상품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 보유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댐 주변 생태문화 자원정보와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승하차 데이터를 활용·분석하고, KTX역 접근성 및 지역 명소 인프라를 고려하여 영주댐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 상품을 기획했다.

여행 일정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와 선비문화 테마파크인 '선비세상', '용마루공원 출렁다리'와 '영주댐 물문화관'을 관람하고 영주의 재래시장까지 둘러보는 코스이며, 왕복 KTX 승차권과 연계차량비, 중식비와 입장료 등이 포함된 상품이다. 또한, 영주댐 물문화관에서 영주 특산품인 사과를 소재로 한 방울이 사과샌드와 특별 기념품이 제공되며, 주말에는 영주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예약은 한국철도공사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선비세상

선비처럼 보고, 입고, 먹고, 즐기며 선비의 가치와 정신을 체험하는 전통문화 테마파크다. 한옥, 한복, 한식, 한지, 한글, 한음악 등 6개의 테마기획전시, 미디어아트 전시와 한음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전통한복, 다도, 한지 뜨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한옥촌에서 고즈넉한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도 좋고, 어린이 전용 콘텐츠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도 좋다.



용마루공원

영주 재래시장(자유관광)



영주댐물문화관



용마루공원 & 영주댐 물문화관

영주시 평은면 일대의 영주호는 영주댐이 만들어지면서 조성된 인공호수다. 오래전 높은 산이었던 땅이 섬이 되고 이를 잇는 용두교, 용미교와 용마루공원, 영주댐 물문화관 등이 들어서며 영주의 새로운 산책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용마루공원을 시작으로 영주호 둘레길을 산책할 수 있고, 용두교 출렁다리에 오르면 청량한 영주호를 마주할 수 있다. 영주댐 물문화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물관리 역사, 영주댐의 역할과 이제는 사라진 평은역의 옛 모습 등도 볼 수 있다.

영주역

#방울이의 알고리즘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이송경과 떠나는 깨발랄 안동 여행

올여름 피서지가 고민이라면?
이송경 따라 안동으로 슝~

#월영교 #도산서원
#안동갈비

WWW.YOUTUBE.COM/KWATERTV



블로그

여름 오기 전에 잠깐, 체크하셨나요?

#에어컨&자동차 관리법
#식중독 예방



X(트위터)

나 이날만을 기다렸다고!

#세계 행복의 날
#방울이는 행복해



페이스북

여름 바람 느끼기 좋은 힐링 자전거길

#청계천 #남한강 #의암호
#영산강 #디아크



인스타그램

오직 방울이만… 당신의 편

#BANGWOORI #WOORI
#우리

<물, 자연 그리고 사람>

7월호 이벤트 안내

Vol.688

EVENT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7월호 사보 또는 웹진을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 이벤트 경품: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2만 원권(5명)
- 접수 마감일: 7월 20일
- 선물 발송일: 7월 31일

참여하기

EVENT 2



물을 마시고 자면 붓는다?!

무더위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여름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다가 잠깐, 문득 물을 마시고 자면 붓는다는 말에 멈칫하게 되는데….

속설처럼 전해오는 이 말,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 STEP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 STEP 2: 1:1채팅방 클릭
- STEP 3: 정답 및 의견
  (정답 및 의견/이름/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간편한 한끼 세트(커피+베이글)
- 접수 마감일: 7월 20일
- 선물 발송일: 7월 31일

참여하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6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정○영(1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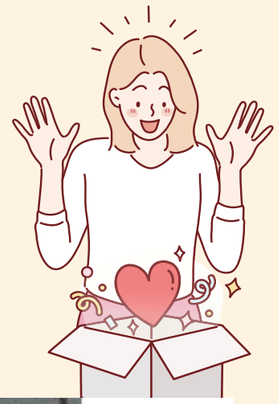
'푸르른 날의 기억 단양'편 잘 감상했습니다. 단양에는 10년 전쯤에 가봤는데, '내가 거기 있었나?' 할 만큼 멋진 풍경을 담아 주셨네요. 단양강 잔도, 구인사, 고수동굴 같은 멋진 곳을 왜 그때 당시에는 몰랐을까요? 괜히 아쉽네요.



김○일(1111)

급변하는 기후 속에 곧 찾아올 장마철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의 대비훈련을 보고 많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연을 이길 수는 없어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응책에 믿고 의지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김○진(4750)

매달 사보를 받아보는데 이번 호는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장에 뜬 방울이를 저도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귀여운 방울이도 보고 사장님의 멋진 시구도 잘 보았습니다. 직원분들의 후기를 보니 참 의미 있는 행사였네요.



이○헌(0301)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가족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저 역시 나태해진 역사의식을 다시금 굳건히 하고 충의 정신으로 단단히 무장한 국민으로 거듭나리라 다짐합니다.



이○순(7526)

인류가 편의와 풍요만 추구하다 보니 지구생태가 훼손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악화되기 전에 걷기를 생활화한다면 건강도 챙기고 에너지를 절약시키고, 환경도 지킬 수 있겠네요. 일석삼조의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넌센스 이모지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 기프티콘 10명

강○주(3621)
노○일(3518)
박○정(9973)
윤○람(8780)
이○나(9293)
이○욱(7847)
임○현(8632)
최○경(0631)
황○성(7702)
황○성(6630)

#편지지 인증샷 이벤트

이벤트 경품 방울이 유리컵 5명

김○빈(4091)
남○현(2635)
서○진(3817)
양○진(1270)
유○화(4804)

※7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감정표현 방울이

오늘 당신의 감정은 어떤가요?

방울이의 표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나의 감정과 가장 닮은 방울이 모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업사이클링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응모하기

참여 방법 QR코드로 제출
접수 마감 7월 20일
선물 발송 7월 31일

경품
업사이클링 키트
(5명)





붙이는 곳

감정표현 방울이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웹진 바로가기

힐링 영주댐 여행
자연에 기댐

K-water × KORAIL × 영주시가 함께하는
‘영주댐 물결 따라 철길 따라’ 선비의 고장 영주사랑여행

이벤트기간 **2025년 5월~7월**(신청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이용혜택 및 특전

K-water
기념품 제공
영주 특산품
‘사과’와 K-water 마스코트
‘방울이’를 활용한
사과샌드와 볼펜 or 물티슈

KORAIL
열차 운임
50% 할인
혜택 제공

영주시
선비세상 입장료
할인
혜택 제공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 후 상품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